사단법인 전국신문협회 The Association of National Newspaper

대전투데이

젊은생각 · 바른신문 전화 042-538-3030 구독배달 042-538-1602 www.daejeontoday.com 제 3087호 2019년 7월 4일 목요일

안정된 노후설계
농지연금
상담문의 1577-7770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洞 자생단체들 기능 중복 · 불합리적 운영 대폭 손질 필요"

조성호 대전서구의원, 회원수 적고 임무 겹쳐 본질 퇴색… 혈세 · 행정력 낭비 초래

▲ 조성호 대전서구의회 의원이 지난달 19일 제2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동 행정복지센터마다 조직돼 있는 자생단체 운영의 불합리한 측면과 자생단체 관리를 위해 근무시간 이후에도 초과근무해야하는 공무원들의 고충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각 동(洞) 행정복지센터에 조직돼 있는 자생단체들이 본연의 기능이나 역할 등이 중복되거나 불합리적으로 운영돼 혈세 낭비는 물론 행정력 소모를 불러일으켜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더구나 일부 자생단체들은 봉사단체로써의 임무를 망각한 채 선거 때만 되면 특정 정당 편들기에 노골적으로 나서는 등 선거 도구로 전락해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전 서구의회 조성호<복수 · 도마1 · 2 · 정림동,자유한국당> 의원이 관내 자생단체 회원들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자생단체가 건강하고 활발하게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조 의원은 지난달 19일 제2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동 행정복지센터마다 조직돼 있는 자생단체 운영의 불합리한 측면과 자생단체 관리를 위해 근무시간 이후에도 초과근무해야하는 공무원들의 고충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자생단체의 운영 내용이 중복돼 있는 것을 본연의 기능이나 임무에 맞게 개선해 자생단체별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서구 관내 2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조직돼 있는 자생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문고, 바르게살기위원회, 남성자율방범대, 여성자율방범대,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자원봉사협의회, 적십자 봉사회, 자유총연맹, 방위협의회, 복지 만두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인회 등이 운영되고 있다.

또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되는 자생단체의 종류는 10~17개에 이르고 있고, 이들 자생단체는 복지만두레를 제외하고는 서구에서 제정한 조례에 의해 구성되고 운영돼 왔다.

조 의원은 "자생단체들은 보건복지부, 국방부, 법무부 등의 관련 법에 의거해 제정된 서구 조례로 고유의 업무와 기능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자생단체의 활동이 방범활동, 환경정비, 각종 캠페인, 반찬 봉사 등으로 유사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라며 "자생단체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제 역할을 못하는 자생단체는 폐지하고 활발히 운영되는 자생단체를 키워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자생단체별로 회원 구성 시 회원 수를 규정하고 여러 단체에 중복 가입을 제한해야 된다. 현재 자생단체 회원들을 보면 대부분 2~3개 단체에 중복 가입돼 활동하고 있다"면서 "자생단체의 구성 목적이 동 행정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넓히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 한 주민이 여러 자생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은 단체 구성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조 의원은 "자생단체 회의에 참여해보면 참여회원수가 너무 적다"면서 "단체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자생단체 회원 수를 15인 이상으로하는 조례로 기준을 잡아 자생단체 회원 구성시 중복 제한 근거를 마련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많은 자생단체들의 활동으로 공무원들의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는 점도 개선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자생단체는 한 달에 한 번 동 행정복지센터에 모여 주요 구정 및 동정 등 현안사항들을 전달받고, 정기적인 회의를 진행한다. 대부분의 회원들이 직장인이다 보니 회의시간은 회원들의 퇴근시간에 맞춰지고,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은 퇴근시간 이후에도 회의진행에 따른 잔업을 수행해야 하는 현실"이라면서 "이는 근무시간 중에도 각종 민원처리와 본연의 업무 처리로 바쁜 직원들에게 업무의 가중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과 자기행복의 균형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삶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공무원들도 워라밸의 삶을 누리도록 근무시간 내 자생단체 회의 진행에 관한 근본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그동안 자생단체들이 동별로 우후죽순으로 설립돼 운영됐지만, 정작 자생단체 설립 목적에 맞는 역할을 다해 왔는지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한 시기"라며 "지방자치분권시대에 맞는 자생단체들의 재정립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조언했다.

이정복 기자

설동호 교육감 학교급식 · 돌봄 학교 현장 긴급 점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 관련 학생 · 학부모 혼란 최소화

대전광역시교육청은 3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에 따라 일부학교에서 학교급식 및 돌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설동호 교육감이 급식이 중단된 대전지역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도시락 지참 등 대체급식 운영 상황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재 유 · 초 · 중 · 고 등 총 266개 학교에 근무 중인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파업참가 인원을 파악한 결과, 첫날 414명이 파업에 참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16개 학교는 도시락 지참, 19개 학교는 빵, 우유 등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13개 학교는 기말고사 및 학사일정 조정 등의 방침을 정하여 대처하였고, 급식 외에도 돌봄교실, 특수아동 지원,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등은 교직원의 대체근무를 통해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육기관이 처한 어려운 교육재정 상황을 함께 헤쳐 나가고자 하는 진정한 모습을 다 같이 보여야 할 것을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간곡히 요청하였고, 교육공무직원들에 대해 지속적 관심을 갖고 교섭 및 소통을 통해 처우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설동호 교육감은 "파업기간 중에 비상대책반을 상시 가동하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학교 교육과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학부모님들의 혼란을 최소화 할 계획이며, 무엇보다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학교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충남도 'C-스테이션' 조성 사업 파란불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 현장 평가 통과

대한민국 제2의 벤처 붐 주도를 위해 충남도가 역점 추진 중인 'C-스테이션' 조성 사업에 파란불이 켜졌다.

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 공모에 도가 응모한 C-스테이션 사업이 2차 현장 평가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스타트업 파크는 개방형 혁신창업 거점으로, 창업자와 투자자, 대학 등이 열린 공간에서 교류 · 협력하는 공간이다.

도는 이 공모에 대비해 KTX 천안아산역 유휴 공간을 활용한 C-스테이션 사업 계획을 세우고 도전장을 제출, 1 · 2차 관문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 중순 7개 시 · 도와 함께 3차 발표 평가를 받게 된다.

중기부는 발표 평가를 통해 올해 즉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 대상 1곳을 최종 선정한다.

중기부는 또 최종 대상에서 탈락한 7개 시 · 도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 대상에 탈락하더라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도는 그러나 최종 대상에 선정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도는 천안아산역이 개방성과 집적화, 지속가능성 등 중기부의 스타트업 파크 선정 기준에 가장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

민간 창업 생태계가 밀집해 있는 수도권과의 교통접근성이 우수하고, 반경 10㎞ 내에 14개 대학과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등 31개 유관기관이 위치해 있으며, 아파트와 도서관, 체육관 등 정주여건도 탁월하다.

이와 함께 신축이 아닌 기존 역사를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최종 선정 시 2020년 개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도 관계자는 "천안아산역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유니콘기업 육성의 최적지"라며 "이번 현장 평가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최종 선정을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차역을 창업 공간으로 개조한 프랑스의 '스테이션 에프(Station F)'에서 착안한 도의 C-스테이션 사업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개방형 혁신 창업 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위치 및 규모는 천안아산역 유휴공간 16만 7438㎡로, 도는 국 · 도비를 포함해 총 320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단계별 조성 계획을 보면, 도는 우선 1단계로 241억여 원을 투입해 2 · 3층 2만 2066㎡에 스타트업 · 커뮤니티 · 크리에이터 · 플레이존 등 4개 구역을 조성한다.

4개 구역에는 창업 입주실, 캠퍼스 플랫폼, 코워킹스페이스, 글로벌 스타트업 입주 사무실, 전문제작업체 입주 공간, 디자인센터, 교육실, 다목적 문화시설, 휄스케어 시설, 창업카페, 회의실 등을 설치한다.

2단계 스타트업촌 조성은 60억여 원을 투입해 역사 좌우 교량 내에 블록형 창업공간 144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3단계는 스타트업 거리 및 광장 조성으로, 19억여 원을 투자해 교량 주변 구역 및 역사 인근 광장을 정비해 입주 기업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김정환 기자

Plus in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주)플러스교육연구소
소셜미션 수행 혁신교육프로그램
www.plusinedu.com
대전광역시 둔산로 52 메리골빌딩 7층 (본점) · 대덕구 회남로 70(회남대학교)시빌리관 307호 (연구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70병상 규모 합의

민관협력자문협의회의 결정으로 정상 추진 가능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규모가 결정되면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됐다.

대전시는 지난 2일 오후 열린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민관협력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기획업무용역 최종 결과 예산 범위 내 가능병상 3개안 중 효율적 방안을 논의해 재활치료를 중심으로 한 70병상(입원50, 낮20) 규모로 건립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그동안 병상 수 등 규모의 문제로 오랜 시간 갈등을 빚어왔지만 이날 민관협력자문협의회의 결정으로 정상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협의회는 부족한 낮 30병상은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해 기존 의료기관의 협조를 받아 운영하는 방안과,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시 증축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등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사안을 반영해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협의회 결정을 바탕으로 기본설계안을 마련하고, 현상설계 공모를 위한 설계방침과 기초도면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장애아동과 부모님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모범적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되도록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넥슨)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2021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하는 공공분야 최초의 어린이재활병원으로 건립비 447억(국비 78, 시비 269, 후원 100)이 투입돼 재활치료, 부모들을 위한 아이 돌봄과 정규 교육이 함께하는 장애아동 맞춤형 시설을 갖춘 어린이재활병원의 신(新)모델로 탄생할 예정이다.

이정복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말레이시아 공무국외출장' 일정 마무리

세종시의회

(의장 서금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채평석)는 7월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말레이시아공무국외출장' 일정을 마무리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한국어 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수도 현장시찰을 통한 세종시 발전방안 모색 등을 목적으로 말레이시아를 방문했다. 첫째 날에는 푸트라자야 인공호수를 방문해 세종호수공원과 비교 · 분석하고 ILC칼란어학원(한국어학원)을 찾아 현지에서 이뤄지는 한국어 교육 실태를 파악했다. 둘째 날에는 푸트라자야 관리청과 쿠알라룸푸르대학(한국어학과)을 방문해 행정수도 위상 정립 사례와 한국어 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세종시 유학생 유치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김정섭 시장 "물 관리 기본조례 제정, 전담기구 구성"

"금강 보 처리 관련 시민혜택 줄지 않도록 적극 건의할 것"

김정섭 공주시장이 올해 안에 물 관리 전담기구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시 차원에서 물 관리 전담기구 구성, 공주시장의 책무 규정, 공주시 물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조례를 하반기 중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이달 중 첫 회의를 열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금강수계 물관리 대책에 대한 공주시의 입장을 건의서로 만들어 전달하겠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현재 금강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혜택이 줄어들면 안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전제"라고 강조한 뒤, "특히, 그 동안 금강 물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 공주시의 관점에서 정부에 대책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용수 확보나 수질오염 대책이 기본이 될 것"이라며, "환경 · 교육 및 감시 등을 아우르는 기구 구성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시장은 "금강 물에 대한 수질오염 논란이 아직 해결 안됐고, 그 동안 물이 많아도 이용을 잘 못했다"며, "정부가 몇 년이 걸리더라도 공주시민을 위한 물 관리 및 이용대책을 확실하게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주=정상범기자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

시민불편해소 의정활동 빛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원식 의원이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해 화제다. 세종시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운수업체와 관할 지자체인 충남도와 협의해 11일부터 세종~인천공항행 시외버스 운행횟수를 4회 증설하고, 증설한 시외버스는 조치원을 경유해 운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세종시 북부지역 주민들은 인천공항에 접근하려면 세종시 신도심이나 인근 천안, 청주, 오송의 교통편을 이용하여 접근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번 조치로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북부권 주민의 이용편의 증대가 기대된다.

김 의원은 지난 제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 북부지역 교통인프라 거점 마련이라는 주제로 세종시 북부지역 주민들의 인천공항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 실생활과 연계되어 있는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 해소하여 시민이 행복한 세종시 건설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조치원 죽림 · 번암을 지역구로 둔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재선의원으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의정철학으로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현장을 누비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종=김태선기자

이상민 의원 "SW대가 혁신 위해 SW진흥법 통과 시급"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회원사 국회방문

'SW대가 혁신 위한 기업간담회' 개최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3일(월) 오전8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회원사들과 함께 SW업계의 현안을 듣는 'SW대가혁신을 위한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18년 11월 SW대가 혁신을 위한 정책 세미나 이후 개선 사항 점검 및 향후 지속 활동 사항 논의를 하고 각 기업대표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마련됐다.

박진국 회장은 "그간 공공SW사업의 불합리한 관행으로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지 못했던 사업환경 및 법 ·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공공SW사업 관련 법 개정을 통해 SW정당대가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상민 의원은 "SW대가 혁신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SW 핵심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다방면으로 논의해왔다"며 "이제는 실질적인 개선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SW진흥법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국회=김성구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중부지사 초청 간담회 개최

중구의회, 주요 현안 토의와 의정활동 홍보 통해 소통의 장

대전 중구의회(의장 서명석)는 3일 의장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중부지사(지사장 류호영) 관계자들과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및 의정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난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중부지사장으로 취임한 류호영 중부지사장을 비롯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에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난 1년여간의 제8대 의회 의정활동 성과를 공유한 뒤 중구의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명석 의장은"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고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을 더해 사회안전망 강화에 노고가 많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중부지사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 중구의회에서도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호영 중부지사장은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를 해결하여 가계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중구의회와도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한국효문화진흥원과 '효 문화발전 세미나' 개최

이명수 의원, 세대 공감할 수 있는 孝 문화 새로운 가치 창출

한국효문화진흥원은 2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실과 함께 한국 효문화의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한국 孝 문화 진흥원'과 함께 한 이번 세미나는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인 孝를 계승 발전 시켜 나가기 위해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孝 문화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으로서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정책적인 방안들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명수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앞서 인사말에서 "孝문화를 정책적 인성교육을 통해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모두 장려되고 장기적 차원에서 계획되며 우리 민족의 정신으로 남아 부국강병(富國强兵)함의 뿌리가 예와 정직, 책임, 존중, 배려와 소통과 협동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통해 정책적으로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시성 원장은 "이번 정책 세미나가 한국 효문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귀중한 논의의 장이 됐다"며 "앞으로도 진흥원은 한국 효문화 발전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며 관련 기관 · 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제2차 공공기관이전 충청권에 우선 지정해야"

자유한국당 충청권 시 · 도당위원장, 3일 충북 제천서 정례회의서 밝혀

광고문의
(042)538-3030

자유한국당 충청권 시 · 도당위원장(육동일 대전시당위원장, 송아영 세종시당위원장 직무대행, 엄태영 충북도당위원장, 이창수 충남도당위원장)은 3일 충북 제천에서 정례 회의를 개최하고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시 · 도당위원장들은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경제 인식을 비판하고 집권 2년동안 무너져 내린 우리의 경제실정을 다각적으로 심도있게 분석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 복지 포퓰리즘, 친노조 · 반기업, 문재인 케어, 4대강 보 해체 등의 정책실패가 초래한 위기로 경제가 폭망하고 국민들의 분노는 높아가고 있느냐, 문재인 정권은 잘못된 정책의 부작용을 확인하고도 수정은커녕, 더 큰 포퓰리즘으로 오로지 집권연장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충청권 시 · 도당위원장협의회는 "정부는 중소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이 고통 받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정책방향을 대전환하여 국민이 행복한 신 경제정책을 이행하라"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사업,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낙후된 충청권에 우선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조속히 추진하고 제천 ~ 원주간 중앙선 복선화사업과 제천역사 건립을 조속히 완공하라."고 주장했다.

이정복기자

국회아프리카새시대포럼 · 한 · 아프리카의회외교포럼 주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초청 강연

국회 아프리카새시대포럼(회장 이주영 국회부의장) 및 한 · 아프리카의회외교포럼 주최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초청 강연회가 열렸다.

3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초청강연회에는 Carlos Victor Boungou(봉고우) 주한 가봉대사를 비롯한 주한 18개 아프리카지역 공관장, 국회아프리카새시대포럼 회원 의원, 그리고 최연호 한 · 아프리카재단 이사장 등 국내 아프리카 관련 인사들이 다수 참석, 성황리에 개최됐다.

오는 7월 10일 오전에는 황창연 신부를 초빙하여 제60차 강연회를 열 예정이다.

국회=김성구기자

아산시의회, 개원1주년 맞아 시민곁에서 봉사활동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 찾아뵙고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아산시의회(의장 김영애)가 지난 2일, 제8대 개원 1주년을 맞아 기념식대신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봉사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이날 아산시의회 김영애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1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초심을 다지고자 송악면에 위치한 아산설화요양원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한 환경정리, 배식봉사, 말벗 등 성심껏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개원 1주년 기념행사는 의례적 행사를 없애고 요양원의 휴지, 세제 등 필요물품을 전달하는 등 진심으로 시민들에 대한 보답으로 봉사활동에 임했다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

김영애 의장은 "이번 1주년개원 기념으로 의례성 행사를 없애고 외롭게 지내시는 어르신들을 뵙고자 요양원을 방문했다"며, "아산시의회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 출범한 제8대 아산시의회는 1년간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활발한 조례 제 · 개정, 현장방문, 생활현장 곳곳을 누비며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고, 지역발전과 시민복지라는 양 수레바퀴를 끌고 그 어느 때 보다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쳤다. 아산=리량주기자

의회 존재감 여실히 보여준 1년… 기대이상의 성과 돋보여

김종천 대전시의회의장

'행복한 대전,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 라는 의정 슬로건을 내걸고 시민과의 소통을 중요시 한 제8대 대전시의회 김종천 의장이 3일 지난 1년의 성과와 소회를 밝혔다. 김 의장은 "개원 초부터 오로지 시민 편에 서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견제와 감시를 제1책무로 주어진 역할에 충실을 기해 왔다"며 "그동안 언론인과 시민단체로부터의 격려와 응원 그리고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열정과 패기로 자발적인 연구모임 활동을 펼치는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준 동료의원께도 감사를 드린다"며 소회를 밝혔다. 남은 임기 1년 의정방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제8대 대전광역시의회 출범 1년을 맞이한 소회는.

제8대 대전광역시의회가 '행복한 대전,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경청의 자세로 시민들과 소통하며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생활의정을 펼쳐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1년이 지났다.

150만 대전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장으로서 시·의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

지난 1년 대전시의회는 원칙과 기본을 바탕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정구현'과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생활의정', '연구하고 공부하는 정책의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이러한 일련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회의 존재감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가다. 특히,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열어 가는데 기여한 공적으로 지난해 지역 언론이 시상한 '풀뿌리자치대상' 의정발전 대상을 수상했다.

또 금년에는 '대한민국 지식경영대상' 지방의회 부분 베스트 정치인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행정안전부에서 공시한 '2016 지방의원 조례제·개정건수' 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가 광역시 중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8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는 우리시 의회가 2007년부터 11년간 의원 1인당 조례제·개정한 건수가 2.05건으로 전국 16개 광역의회 중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을 세우는 등 전국적인 모범 의회로 꼽히고 있다.

▲지난 1년, 의정성과는.

제8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제238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각각 세 차례씩 정례회와 임시회를 열고 129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398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했다.

그 중에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원발의 조례안 52건, 규칙안2, 건의안 18건, 결의안 9건, 요구안 2건, 승인안 6건 등이 처리됐다. 또한 정책현안에 대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간담회도 41회가 개최됐다.

그 외에도 시정질문에서는 17명의 의원이 8개 분야 41건을, 5분 자유발언에서는 19명의 의원이 40건의 사안에 대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도 했다.

또한, 제8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역대 가장 원만한 전례 없는 원구성을 이뤄 '첫 단추를 잘 끼웠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점과 그동안 여섯 차례의 회기를 거치면서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견제·감시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등 의회 본연의 책무를 기대 이상으로 펼쳐 전반적으로 '합격점'을 받은 점을 말할 수 있다.

괄목할 만한 것은 개원 초부터 초선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지방자치연구회'라는 연구모임을 통해 시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은 물론 전문지식을 습득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점과 국회수준의 예산안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의회의 존재감을 여실히 보여줌으로써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찬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할 만한 성과라 볼 수 있다.

▲의회 직원의 인사권 독립을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 그동안의 성과가 있었다면.

대전시의회는 연간 200여건이 넘는 조례안을 심의하는 입법활동(의원 1인당 9건)과 8조원에 이르는 대전시와 교육청의 예산(기금포함) 및 결산을 심의하고 의결한다.(의원 1인당 3,636억원) 또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는 물론 복잡 다양한 복합민원의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22명의 시의원으로는 한계가 있다.

의장으로서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만큼은 임기 내 반드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 시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방의회가 한 걸음 더 발전하고 제대로 된 견제·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물론 정책보좌인력 확보, 더 나아가서는 지방의원 후원회제도 등과 같은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6월 18일 자치단체장의 권한이었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중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조항이 구체화된 셈이다. 강조하지만,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지방분권의 기본이고 필수다. 지방분권 관련 법안이 지체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공조를 이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아갈 계획이다.

▲대전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여 왔는지.

제8대 대전시의회는 전체 22명 중 20명이 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출발부터가 여대야소의 구도였다.

가파르게 기울어진 구도를 두고 일부 언론과 시민들께서는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저 또한 의장으로서 같은 걱정을 했었다.

그러나, 그동안 여섯 차례의 회기를 거치면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기우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 회기·비회기 구분 없이 집행부에 대한 송곳 질의로 엄격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시민의 혈세가 누수 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철저한 예산안 심의를 통해 자구노력이 부족하거나 방만한 예산 운용, 행사성 경비 등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 조치하기도 했다.

지난 본예산 심의에서는 203억 5,100만 원을, 추경에서는 61억 8,84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역대 가장 많은 예산을 삭감해 집행부가 초긴장할 정도의 의정활동을 펼쳐 일당 독주체제에 대한 우려가 기우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앞으로도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활동을 강화해 시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힘을 보태겠다.

▲민선 7기 대전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민선 6기말 시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범한 민선 7기 1년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딛고 많은 정책을 펼친 결과 성과반 아쉬움반 이었다고 생각된다.

성과로는, 지난 10여 년간 끌어온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이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확정된 것이 가장 손꼽힌다. 그 외에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공모사업 선정,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사업 공동 협력, 대전하수처리장 및 교도소 이전 확정,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예비타당성 통과, 3·8민주의거 국가기념일 지정, 충청권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협약 등 대전시의 오랜 숙원사업이 의회와 정치권의 공조로 원만한 해결점을 이끌어 냈다는 것이 민선 7기의 성과로 여겨진다.

그러나, 시민과 시민, 시민과 대전시 간 첨예한 갈등과 반목으로 표출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나 신축 야구장 건립 후보지를 둘러싼 유치 과열 경쟁, LNG 발전소 건립 잡음 등 소통부재로 방향을 잃은 소모적인 논쟁에 대해서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난 1년간의 성과와 아쉬움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인 의회와 집행부가 충분한 소통과 대화, 상호존중과 신뢰로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이라는 큰 틀 속에서 동반자적 관계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지방의회마다 공무국외활동이 문제 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의원들의 공무국외연수에 대해 어떤 개선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활동과 관련하여 일부 지방의회의 국외연수과정에서 발생한 의원의 부적절한 행태로 부정적인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나 언론으로부터 고질적인 단골메뉴로 외유성연수라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국외연수는 외국의 선진사례를 직접 찾아가 보고 듣고 정보를 습득해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정책이나 제도에 접목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우물 밖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교육 훈련과정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시 의회는 제8대 의회 출범과 함께 의원들 스스로 국외연수에 대해서 강도 높은 개선책을 마련하고 연수 전 TF팀 구성과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한 사전 정보수집, 기자브리핑 실시, 결과보고서 공개 등 당위성과 투명성 확보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

또한, 지난달 21일 열린 제243회 정례회에서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안 보다 더 강화된 '대전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제정했다. 강화된 주요 내용은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민간위원 비율도 1/2에서 2/3이상으로 확대 △공무국외출장 제한조항 신설 △출국 30일전 출장계획서 제출 △예산 편성 및 집행 조항을 신설하여 그동안의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려는 자정의 노력과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등 연수 성과의 극대화에 노력해 왔다.

▲대전시에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같은 당면 현안에 대한 갈등이 많았다. 시의회 차원의 입장과 역할은?

최근 대전시 현안 중에서 시민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지역의 최대 이슈로 관심이 쏠리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지난 14일 도시계획위원회의 격론 끝에 11대 7로 부결 결정되면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재정 부담을 안게 됐다.

현재 대전시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미집행 공원 26곳 1,439만 7,000㎡에 대한 보존대책으로 재정적 투자와 민간투자를 통해 공원 내 사유지 매입을 추진해 왔으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친 바 있다.

대전시가 처음 도입한 공론화 방식으로 새롭게 구성된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몇 개월간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공론화 과정과 숙의 토론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민간특례 반대 60.4%, 찬성 37.7%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었다.

유성구 장대 B지역 재개발 조합설립에 대해서는 지난달 11일 유성구로부터 인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되고 있다.

이에 대전시의회에서도 상인들의 생존권 보장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통한 '새로운 대전, 행복한 대전'을 만드는데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협력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대전시의회는 대전시의 미래상과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당면 현안사업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갈등 해소에도 힘을 보탤 것이다.

▲앞으로의 의정운영방향과 계획은.

최고의 정치는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다. 시민들의 꿈과 희망이 잘 여물어 갈 수 있도록 22명 시의원 모두는 원칙과 성실을 바탕으로 소통과 협치, 협력과 견제의 조화를 이뤄 우리시가 더 발전하고 시민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가 함께 할 것이다.

항상 낮은 자세로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경청하고 소통하며, 의회의 문턱도 더 낮추고 의장실의 문도 활짝 열어 소통의 창구역할을 하겠다. 궁극적으로는 '행복한 대전,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대전시의회를 이끌어 가겠다.

집행부에 대해서도 행정 감시를 위한 감시나 비판을 위한 비판에서 벗어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

주요 정책을 결정하거나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민주적인 절차를 중시하고 지방의회의 발전과 지방의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품격 있는 의회상을 구현하겠다.

맹탕이나 거수기 의회라는 오명을 받지 않도록 오로지 시민 편에 서서 견제와 감시를 제1책무로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의회의 존재감을 보여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들께 한 말씀.

제8대 의회가 개원 이후 줄 곧 행복한 시민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동안 최선을 다해 왔지만 부족한 점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를 믿고 성원해 주시는 시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린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대전 시민들께서 시장과 구청장,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민주당을 지지해 주셨다.

그러나 최근 들어 언론매체를 통해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그만큼 시민들께서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고충이 가중되면서 경제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은 우리주변의 가장 어려운 분들이다. 그 분들을 위해서라도 지금은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참고 견디면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시민여러분! 고통분담 차원에서 어려울 때 일수록 서로 돕고 힘을 합쳐 파이팅 하시기 바란다.

우리 대전시의회도 원칙과 성실을 바탕으로 소통과 경청을 통해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귀 기울이며 시민을 위한, 시민만을 바라보는 생활정치를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김정환 기자

●동 정●●●

대전 · 충남도농협동희망포럼

황인호 동구청장= 4일 오전 10시 30분에 선샤인호텔에서 개최되는 2019년 대전 · 충남 도농협동 희망포럼에 참석, 오후 14시 구청장 접견실에서 충남대학교 법률센터 업무협약식을 개최.

2019 양성평등주간 행사

박용갑 중구청장= 4일 오후 2시 중구문화원 뿌리홀에서 열리는 '2019년 양성평등주간 행사' 참석.

관저마을의 하루 협약식

장종태 서구청장= 4일 오후 2시 관저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일회용품 없는 관저마을의 하루 협약식에 참석한다.

노인복지관 신축 기공식 행사

정용래 유성구청장= 4일 오후 3시 원신흥동 578-2번지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2유성구노인복지관 신축 기공식 행사에 참석한다.

수립용역 착수 보고회

박정현 대덕구청장= 4일 오전 9시 30분 대덕구 신탄진동 금강로하스타워 II에서 열리는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용역 착수 보고회에 참석.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는 지난 2일 구청 구민의 사랑방에서 '대덕구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작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덕을 키우는 아이디어 톡톡(Talk Talk)'이라는 명칭으로, 대덕을 키우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총 40일 동안 열린 공모전에는 총 80건의 일자리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대덕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6건의 우수제안이 선정됐으며, 금상과 은상 없이 동상 2명, 장려상 4명이 수상자로 결정됐다.

동상은 '청년 주도의 대덕 마을기업 · 협동조합 육성', '사회적 경제 창업 활성화를 위한 위키방식 창업 플랫폼 및 사회적경제 여행 탐방 시니어 코디네이터 제안' 2건이며, 장려상은 '대덕구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사업', '전통시장 SNS홍보 마케팅 셀러', '청년 옷장 드림(Dream)', '코딩교육을 통한 4차 산업혁명 트라이앵글 구축' 등 4건이 선정됐다.

동상과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70만원과 40만원의 시상금이 수여됐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제안된 사항은 대덕구 일자리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며 건강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태선 기자

불법영업 폐기물업체 6곳 적발

대전시 특사경, 미신고 대규모 고물상 · 폐기물처리시설 등 운영자 입건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1일부터 2개월간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및 미신고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폐기물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대전시는 이번 단속에서 폐기물처리신고 미 이행 3곳, 미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1곳,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2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및 미신고 우려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시됐으며, 최근 관리망을 피해 사업장 내에 폐기물을 '무단 방치' 하거나 임야 등에 '불법 투기' 되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폐지, 고철 등 폐기물을 수집 · 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사업장은 규모가 1,000㎡ 이상이면 신고를 해야 하나 A사업장은 약 1,500㎡ 규모의 사업장에서 해외 수입용 압축폐지와 소규모고물상에서 수집한 폐지 총 200여 톤을 보관하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사업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비철금속인 폐알루미늄을 수집하면서 알루미늄 부피를 줄이기 위해 압축기를 설치 · 운영하다 적발됐다.

스티로폼 제품을 생산하는 C폐기물재활용업체는 화학물질을 사용하면서도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집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인 도포시설, 건조시설을 가동하다 적발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자를 모두 형사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조치 할 예정이다.

대전시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요즘에도 사익을 챙기기 위해 폐기물 방치 · 투기 등 불법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능화 되어가는 범죄에 대해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제1회 유성 다과상 과학캠프 운영

관내 초등학생 대상 오는 29일~8월 10일까지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제1회 유성 다과상 과학캠프'를 운영한다.

이번 과학캠프는 달 착륙 50주년을 기념하고 유성구 과학브랜드 '유성다과상(다함께 과학을 상상하다)' 출시를 맞아 우주를 주제로 유성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충남대학교 인재개발원 등 7개 기관이 협업해 마련했다.

또한, 과학캠프에서는, 사이언스 파티(코딩&메이커교실), 사이언스 씨네톡톡(과학자 해설&영화상영), 사이언스 투어(연구기관 탐방) 등 3개 분야 8개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하며 <사이언스 파티> 포함 3개 이상 프로그램 참여 학생에게는 소정의 캠프 수료증도 수여한다.

특히 이번 캠프에서는 국내 최초로 지구위협소행성을 발견한 한국천문연구원 장안영민 박사의 '사이언스 씨네톡톡-지구위협소행성 발견 천문학자의 소행성 이야기' 행사도 예정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최근 달 착륙 50주년을 맞아 우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번 캠프에 참여하는 많은 학생들이 우주를 향한 꿈을 키워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봉관 기자

2019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위한 시설물 전수조사

중구, 오는 31일까지 현장조사 후 10월 부과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오는 4일부터 31일까지 시설물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대상은 시설물의 모든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이상인 시설물에서 160㎡이상을 소유한 자로, 10월 중 부과된다. 다만 주차장, 차고, 주거용 건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과기간인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중 휴 · 폐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시 시설물 소유주, 관리인 등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교통과(606-6862)로 하면 된다.

김태선 기자

서구 공개강좌 개최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3일 서구청 대강당에서 민간위탁시설인 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센터장 황의석)와 관내 학생 및 교사, 유관기관 종사자, 지역주민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긍정적 중독'이라는 주제로 공개강좌를 진행했다.

이날 강연은 이지브레인 이재원원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뇌공학박사)이 강사로 나서 '도파민이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강의했다.

또한, 이재원 원장은"도파민을 생성하는 본능 뇌가 과도한 억압으로 도파민 생성이 저하되면 저하된 도피민은 이성 뇌를 약화시키면서 악순환이 진행된다"라며 "도파민 결핍 증상을 보이는 현대인들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쉽게 중독물질과 행동에 빠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강하게 도파민을 생성시키도록 하는 '긍정적 중독' 활동들을 제안하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강연에 참석한 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중독회복 회원 윤모씨(57세)는 "중독에서 벗어나 보니 즐거운 일이 많아졌다. 강연에서처럼 서구민 모두 진정한 즐거움을 만끽하며 중독문제 없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서구 관계자는 "중독예방 공개강좌를 통해 중독문제의 위험성과 해결책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자리가 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다.

박봉관 기자

9일부터 서대전역 전용노선 622번 운행개시

市, 서대전역 접근편의 · 주변상권 활성화 기대

대전시는 서대전역 접근편의와 주변상권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일부터 서대전역 전용노선 622번을 신설 운행한다고 3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622번 노선은 호남선 KTX 이용시 접근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전역, 광역BRT노선, 복합터미널 및 도시철도역을 경유하는 등 서대전역을 중심으로 운행되는 전용노선이다.

622번 노선은 서대전역 열차시간을 고려해 오전 5시 40분부터 오후 10시 45분까지 운행하며, 4대가 1일 총 88회 왕복 운행한다.

평균 배차간격은 25분이나 출퇴근시간대는 20분으로 단축 운행할 예정이다.

대전시 문용훈 교통건설국장은 현장점검에서 "서대전역 활성화를 위해 운행 개시하는 전용노선인 만큼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대전을 찾는 방문객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승거점이 되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교통여건 변화에 맞춰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노선의 배차간격을 단축하는 개선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새마을중구부녀회 고부 나드리 실시 새마을중구부녀회(회장 민희영)는 지난 2일 동부녀회장을 비롯해 결연 맺은 어르신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주 덕유산으로 고부나들이를 실시했다. 이날은 지회에서 오전 10시 출발해 덕유산과 와인동굴, 양수발전소, 전망대등을 관람했으며 손수 만들어간 반찬으로 점심을 맛있게 식사했다. 한편 지난 5월 30일 시부녀회(회장 유영숙)주관으로 대전시내 동부녀회장과 홀몸어르신이 자매결연을 맺고 지속적으로 안부묻기, 집안청소, 안마해드리기, 밑반찬해 드리기 등 활동을 하기로 결의했다.

현암초교 등 도시숲 조성사업 완료

동구,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 · 미세먼지 저감 일석이조 효과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상반기 도시숲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구는 ▲현암초 ▲계룡디지텍고 ▲우송고에 소나무, 느티나무 등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좋은 나무를 식재해 학생과 인근 주민들에게 친환경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했다.

또한, 노후한 시설로 이용률이 낮은 신상동 쌈지공원에 셉테드(CPTED) 기법을 적용해 안전한 공원으로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 나무 식재와 방문객 편의시설 조성으로 대청호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이용 편익을 증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는 하반기에도 미세먼지 저감 '가로수 수종갱신', '도로변 경관개선사업' 등 도시숲 조성사업의 연속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숲' 유지를 위한 관리사업도 적극 병행할 계획이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도시숲은 미세먼지 문제와 열섬화 현상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이라며,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숲을 꾸준히 늘려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남대병원 대전지역암센터

'암환자를 위한 진료안내서' 개정판 보급

충남대학교병원 대전지역암센터(소장 김제룡/외과 교수)는 환자중심의 고품격 암진료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처음 암진료를 받는 환자들의 치료설명과 교육을 위한 5대 암종에 대한 진료안내서 개정판을 새롭게 제작했다.

진료안내서는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폐암 등 5종 암종에 대해 진단 및 치료, 수술 및 입원안내, 수술전후 안내, 암 치료 후 암생존자 통합서비스 소개 및 암검진 안내를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진료안내서는 처음 암진료안내센터와 외래진료실, 입원병동에서 치료단계별로 체계적인 암치료과정에 대한 설명과 교육을 위해 제공될 예정이다.

대전지역암센터 김제룡 소장은 "암환자들이 진단 및 치료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환자 설명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위해 맞춤형 진료시스템과 콘텐츠를 적극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역암센터는 환자중심의 맞춤 암진료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상담교육실을 운영해 혈액종양환자를 위한 교육과 설명을 강화하고 있으며, 다학제통합 진료를 대장암, 유방암, 폐종양수술 환자에게까지 확대해 여러 암전문의와 한자리에 모여 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는 맞춤형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송병배 기자

市 피서지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

8월 말까지, 쓰레기 없는 깨끗한 휴가보내기

대전시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휴가철 피서지 쓰레기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휴가철 피서지 쓰레기 관리대책'은 내달 31일까지 추진되며, 유원지나 휴양림 등 주요 피서지를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한 환경정비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오는 15일까지 시와 자치구 등은 사업부서별로 피서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 대한 사전 대청소를 실시할 예정이며, 대책추진 기간에는 쓰레기 배출함을 설치해 1일 2회 이상 수거하고 별도로 기동반을 편성해 쓰레기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반을 편성 · 운영해 위반 행위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대전시 양기현 자원순환과장은 "쓰레기 없는 깨끗한 휴가를 위해서는 행락객들의 환경보호 의식이 중요하다"며 "즐거운 휴가 후 발생된 쓰레기는 꼭 되가져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당진시 여성 100인 토론회 열려

양성 평등한 도시 만들기 일자리가 중요… 여성친화도시 정책 적극 반영할 계획

여성친화도시 당진시가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당진 어울림 여성회(회장 오윤희) 주관으로 3일 오전 설악웨딩홀에서 당진여성 100인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진시 여성정책의 현실과 대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오윤희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당진여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주제 발표에 이어 패널토론과 원탁토론이 이어졌다.

(사)경기여성지원센터 조은영 이사가 발표한 당진시 여성 요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자 1085명 중 현재 직업을 갖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519명(46.5%), 가사 및 육아 등으로 인한 무직은 742명(42.3%), 취업 준비 중은 86명(7.7%)으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50.5%)이 현재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진시의 성평등 지수가 낮은 원인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2.4%가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을 꼽았으며, 성 평등한 당진이 되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여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 확충'을 꼽은 응답자가 642%로 나타나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진행된 주제발표에서도 임정규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성평등 지수를 낮추는 중요한 요인으로 여성의 일자리 부족을 꼽았으며, 패널토론에서 토론자로 나선 임희정 네이버 카페 스토리 당진 매니저도 양질의 여성 일자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시는 패널토론과 시민 100명이 참여하는 원탁토론에서 제안된 정책에 대해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당진=최근수기자

공주알밤한우 식육처리 기술교육 실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알밤한우 가공 · 상품화 추진

공주시(시장 김정섭)의 대표 한우브랜드인 공주알밤한우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상품을 생산, 유통하기 위해 알밤한우 사업 단과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축산경영과 학생을 대상으로 식육처리기술 교육을 진행했다.

시에 따르면, 공주알밤한우 브랜드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구축 지원 사업 지정으로 국비 등 3억 원을 지원받아 진행된 이번 식육처리 기술교육은 지난달 19일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안성 농협 축산물 위생교육원의 위탁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식육의 위생처리와 제품화 과정을 중점으로 식육처리 이론과 실습을 통한 원리 이해와 함께 상품화와 마케팅까지 연계한 과정으로, 향후 공주알밤한우를 활용한 다양하고 위생적인 상품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식육처리교육은 지역학교 및 음식점, 육가공 업체와 연계해 기술이전을 목표로 추진됐으며, 현장에 즉시 제품화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실무교육에 교육생들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축산경영과 학생들이 교육에 열의를 가지고 참여해 앞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축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식육처리 기술교육을 담당한 농협 축산물 위생교육원 진상훈 교수는 "식육처리 교육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위생과 안전에 있으며 특히, 작업 중에는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박영환(공주시 반포면 계룡산채 정육부)씨는 "실습 위주의 발골과 정형, 상품화교육이 현장업무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시는 공주알밤한우 브랜드가 한화갤러리아 명품관(압구정점)에서 개최하는 '우수축산물 판매전'에 초대돼 7월 15일부터 2주 동안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주=정상범기자

카스-유튜브 '인터랙티브 영화' 만든다

카스, 유튜브와 손잡고 '인터랙티브 오비맥주(대표 고동우)의 대표 브랜드 카스가 유튜브와 손잡고 시청자의 선택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 인터랙티브 영화 '아오르비(AORB)'를 제작한다. 카스는 '아오르비' 포스터를 3일 카스 공식 SNS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영화 '아오르비'는 사소한 결정을 내릴 때조차 주변의 의견에 의존하는 메이비족(결정장애) 세대들에게 자신의 선택을 믿고 그 선택을 즐기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야스(YAASS)캠페인'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영화 제목 '아오르비(AORB)'는 A 또는 B를 선택하라는 뜻의 'A or B'를 밀레니얼 세대의 어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아오르비'는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유튜브 인터랙티브 영화라는 점에서 더욱 기대가 모아진다. '선택'이라는 주제와 'AORB'라는 제목에 걸맞게 시청자 선택에 따라 주인공의 운명과 내용이 달라지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시청자는 개당 약 1분 30초에 달하는 영상이 끝나면 마지막에 줄거리 진행이 달라지는 2가지 경우 중 하나를 클릭해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고 5번의 선택 과정을 거치면 영화는 끝난다.

작품에는 최근 영화 '기생충'으로 스타덤에 오른 배우 최우식이 주연으로 출연하고 '기생충'의 신스틸러 배우 이정은, tvN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줬던 배우 이정현 등 실력파 배우들이 출연해 영화의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

오비맥주는 '선택 희비극 아오르비' 티저 포스터를 시작으로 트레일러 영상, 숏컷 영상, 본 영상 등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송병배기자

청양멜론공선회 달콤한 '꿀 멜론' 첫 출하

청양멜론공선회(회장 안종직)가 재배농업인의 정성으로 기른 고품질 멜론을 지난 1일부터 출하하기 시작했다.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지원하고 청양농협(조합장 오호근)이 육성하는 청양멜론 출하식은 1일 열렸으며, 이 자리에는 농협중앙회 윤일근 청양군지부장을 비롯해 오호근 청양농협조합장, 청양군 임승룡 농업정책과장, 공선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2017년 20여 참여농가(15ha)로 시작한 청양공선회는 꾸준히 재배면적을 늘려 현재 35ha를 재배, 지난해 폭염 등 이상기후에도 불구하고 5만 상자를 생산해 7억9800여만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공선회원들은 끈끈한 유대감 속에서 재배기술을 공유하고 동일품종 재배, 출하시기 조절, 공동선별 · 공동계산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회원농가 모두가 GAP인증을 받는 성과를 올렸으며, 올해 작황을 볼 때 목표 매출액 10억원을 거뜬히 돌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양지역은 큰 일교차(4~5℃)와 풍부한 일조량, 높은 재배기술로 고품질의 멜론생산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으며, 타 지역 멜론보다 8kg들이 한 상자에 1만원가량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

청양=정상범기자

유럽 자동차와 교육용 자율주행자동차 플랫폼 공동 제작

선문대, 폭스바겐 · 벤츠 · 포르쉐 등 유럽 유명 자동차 회사에 초청 방문

선문대학교(총장 황선조)는 스마트자동차공학부가 지난달 24일부터 체코의 스코다(SKODA)를 시작으로 독일의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벤츠, 포르쉐, RUF에 초청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초청된 이유는 스마트자동차공학부의 교육과정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을 접목해 만든 교육용 자율주행자동차 플랫폼 때문이다.

학생들은 현장에서 디지털 트윈을 접목한 교육과정을 소개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각 회사의 자동차 외형을 공동 제작을 제안했다.

또한, 선문대 LINC+사업단의 국제 ICP(Industry Coupled Collaboration)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자율주행자동차 교육 플랫폼을 세계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에 2개 자동차 회사가 큰 관심을 가지면서 10월에 추가 진행을 협의하기로 약속했다.

학생들은 교육과정 소개 후 각 자동차 회사의 최신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한 자동차 개발 과정 현장을 살펴봤다.

특히 포르쉐의 튜닝 기업인 RUF는 아시아권에서는 최초로 공장 방문을 하게 되면서 외관 성능 향상을 위한 '리저브 엔지니어링' 기술과 산업 동향에 대한 제세한 설명을 듣게 됐다.

한편 선문대의 디지털 트윈을 접목한 국내 유일의 자율주행자동차제작 교육과정은 이미 우즈베키스탄 투린대학교와 아랍에미리트 샤르자 대학에 전파하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이번 유럽 방문을 통해 실제 산업 현장과 밀접하게 연계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산=리량주기자

롯데百 대전점, 체감온도 낮추는 '양산' 챙기세요 롯데백화점 대전점(점장 손을경) 1층 패션잡화 편집샵 '자파즈' 매장에서 뜨거운 자외선을 차단하고, 우산으로도 겸할 수 있는 양산을 선보이고 있다. 양산을 쓸 경우 체감온도를 낮추고, 땀이 감소하는 등 피부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다. 여름 정기세일이 열리는 14일까지 인기 브랜드 닥스, 질스튜어트, 아이엘드 양산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한국수자원공사, 대국민 소통 프로그램

'제 13기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7월 4일 오후 1시, 대전시 대덕구 본사에서 '제13기 한국수자원공사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한다.

이번 발대식은 수자원공사가 대국민 소통 프로그램으로 대학생 서포터즈를 2007년부터 작년까지 2천2백여 명이 참여해 물과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는데 앞장서 왔다. 또한, 올해 서포터즈 모집은 4대1의 지원 경쟁률을 보이며 최종 선발을 통해 총 33팀, 132명으로 구성됐으며, 제13기 서포터즈는 올해 11월까지 물과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월별 주제에 따라 물 절약(7월), 수돗물 바로 알기(8월), 한국수자원공사 물관리 사업 알리기(9월), 물과 환경의 소중함(10월) 등에 대한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한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의 사회공헌 모임인 '물사랑 나눔단'과 함께 취약계층 가정의 주방과 수도 시설 등 물 사용 환경을 개선하는데 참여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앞장 설 계획이다.

온라인으로는 수자원공사의 다양한 물관리 사업을 알리거나 생활 속 물 절약 아이디어 등을 주제로, 장기와 개성에 따라 UCC, 카드뉴스와 같은 다양한 저작물을 직접 제작해 대중에게 알릴 계획이며, 우수 활동 팀에게는 캄보디아 등으로 예정된 올해 해외사회공헌활동 참가 기회와 소정의 장학금 등이 지원될 계획이다.

박봉관기자

대전교육청, 대책마련 · 돌봄교실 등 정상 운영

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 관련 신속 대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 첫날 3일 대전교육청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남부호)를 개최하고 상황 파악과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하게 대책 회의를 가졌다.

대전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 미급식 실시학교에서는 도시락 지참이나 빵 · 우유 등 제공과 기말고사 및 학사일정 조정 등으로 대처하였으며, 급식 외에도 돌봄교실운영, 특수아동 지원,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등은 교직원의 대체 근무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학교비정규직 파업 대비와 교육현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파업에 대한 세부시행방안 및 부당노동행위 유의사항 등을 각 기관 및 학교에 시행한 바 있다.

파업참가자에 대하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불법행위 시에는 엄중한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등 법과 원칙에 의거 대처하되, 파업 미 참여 직원을 활용하여 정상적 학교활동이 가능하도록 파업 대응요령을 안내하였다.

남부호 부교육감(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향후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직원 등 학교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청양산림항공관리소 김대환 소장 부임

"안전한 임무수행과 직원간의 소통 중요"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청양산림항공관리소 제6대 기관장으로 김대환(金大煥)소장이 부임했다.

김대환 소장은 1999년 6월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20년간 산림청 업무를 두루 거친 전문가이며, 산림청 운영지원과, 대변인실을 거쳐 청양산림항공관리소 소장으로 부임했다.

취임 인사말로 안전한 임무수행과 직원간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청양산림항공관리소 소장으로 부임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소통으로 직원들과 함께 안전하고 즐거운 임무수행을 하는 조직으로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양=정상범기자

전세 계약 6개월 남아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국토부, 이달말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특례 전국 확대

이달 말부터 전국 모든 전세 가구는 전세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만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만일의 경우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세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HUG에서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원래 기존 보증 제도는 임대차(전세)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경우에는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지난해 9 · 13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미분양 관리지역'에서는 전세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 특례 규정이 전국으로 확대돼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HUG는 1년간 시행 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전세금반환보증은 HUG 영업점과 홈페이지, 시중은행, 위탁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9월부터는 모바일 '카카오페이'에서도 가능하다.

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수준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전세보증금(전세금)이 1억 5000만원인 경우 2년간 38만 4000원을 보증료로 내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다.

저소득층 · 신혼부부 · 다자녀 · 한부모 ·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보증료를 40~60% 할인해준다. 특례 확대에 따라 계약기간 1년이 지난 후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일이 아닌 전체 전세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증료를 산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전세가격이 하락한 지역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를 통해 서민 임차인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에 대해 안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아산시, 환경친화도시 국외 벤치마킹 실시

프랑스 · 독일 방문, 대기질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등 선진사례 견학

아산시가 오세현 아산시장을 비롯한 기후변화대책과 직원, 시의원 등 총 13명으로 연수단을 구성, 7월 3일부터 12일까지 8박 10일의 일정으로 프랑스와 독일을 방문한다.

이번 연수는 민선7기 아산의 주요 정책목표 중 하나인 환경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벤치마킹이 목적으로,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정책 자료 수집 ▲대기질 개선 · 관리 정책, 측정망 데이터 활용, 월경성 대기오염물질 대응, 대기오염 모델링 분야에 대한 해외동향 파악 ▲선진국 미세먼지 중점 대기질 개선정책 우수사례(수소경제, 수소 ·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등) 조사 ▲주민 참여 재생에너지 수입배분과 관리 행정 시스템 ▲수소위험성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및 시민교육 등의 선진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위한 기관 및 단체 공식방문은 총 8회 예정으로, 프랑스에서는 신재생에너지조합, 환경 · 에너지 지역 · 부서간 이사회, 파리시청 환경부 등을 독일에서는 프라이부르크 시청, 프라이부르크 혁신아카데미 등을 방문한다.

공식방문에서는 재생에너지 산업과 정책을 위한 각계각층의 협력, 대기오염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 정책, 환경산업과 태양경제, 친환경 교통정책, 집단분뇨처리 시설로 인한 갈등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 목표가 성공적으로 실현된 지역도 찾아간다. 지열에너지 활용 생태도시로 유명한 바티뉼 에코시티, 친환경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갖춰진 프라이부르크 중앙역, 소비에너지보다 생산에너지가 많은 프라이부르크 신시청사, 세계 최초 태양열에너지 주택단지, 축산바이오가스플랜트 등도 견학한다.

로마시대부터 사랑받아 온 세계적인 온천 지역 바덴바덴을 찾아 치료 개념의 온천 산업을 살피는 한편, 알자스 와인가도의 관광산업 등 온천의 도시이자, 도농복합도시인 아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방문도 예정돼있다.

오세현 시장은 연수 준비 회의에서 "더 큰 아산이라는 민선7기 목표는 단순한 외양적 성장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혜안을 길러 민선5 · 6기 때부터 이어온 환경친화도시 아산의 위상을 정립하자"고 당부했다.

아산=리량주기자

공주시 "공공와이파이 어디서나 팡팡! 터진다!"

주요 관광지 · 버스정류장 등 공공시설 249개소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공주시 주요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공공와이파이가 대폭 확대된다.

최인종 행정지원과장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69개소에 설치돼 있는 공공와이파이를 올해 안에 180개소를 추가해 249개소로 확대키로 하고, 이를 위해 242대의 공공와이파이를 새롭게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900만원, 도비 4900만원, 시비 1억 800만원, 통신사 1억 3200만 원 등 3억 28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황새바위와 백미고을길, 풀꽃문학관 등 주요 관광지 16개소에 단말기 59대가 올해 안에 설치돼 관광객들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통신사와 매칭펀드 방식을 통해 공공도서관 4개소와 보건지소 8개소 등에도 무선 인터넷 인프라가 구축된다.

특히, 관내 버스정류장 106개소에도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될 예정으로,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와이파이 서비스와 함께 시내버스 이용객의 편의성과 통신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시는 외부 관광객을 대상으로 빅데이터를 수집해 관광정책 등에 반영할 계획으로 설치목적과 대상에 따라 전략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최 과장은 "도심지역 주요 도로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사전 수요조사 해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공공와이파이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장애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등 이용편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2019년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대상 공모전 개최

창작모형과 디자인 2개 부문, 관내 옥외광고업자, 대학생 대상

대전시는 우수한 간판을 발굴하고 장려하기 위해 '2019년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대상 공모전'(이하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획일적이고 관행적인 광고물에서 벗어나 도시경관에 잘 어울리는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간판 조형물과 디자인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된다.

특히 올해는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광고업자가 실물 모형화해 간판, 홍보물 등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옥외광고 디자인 등도 선보일 예정이다.

공모부분은 창작모형과 디자인 2개 부문이며, 창작모형 참가자격은 대전시 옥외광고업자와 광고디자이너이고, 창작디자인은 관내 대학생이면 개인 또는 단체로 참여할 수 있다.

응모작은 9월 9일부터 9월 17일까지 9일간 (사)대전광역시옥외광고협회(대전광역시 서구 둔서대로 957, 2층)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작품심사 기준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독창성과 창의성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조형성, 독창성, 소재활용성, 상품성, 윤리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심사결과는 9월 19일 대전시와 (사)대전옥외광고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10월 1일 '제17회 대전옥외광고대상전'을 통해 입상작 26명에게는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대전시 송인록 도시경관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시민들에게는 광고가 따뜻한 소통매체로서 인식되고, 나아가 쾌적하고 아름다운 광고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공모요강은 대전시 홈페이지(www.deajoen.go.kr)와 (사)대전광역시옥외광고센터 홈페이지(www.djhr.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선기자

청양군, 2일 마을대학

개강…7월 중 5회 운영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마을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일 청양문화원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개강식은 청양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센터장 노승복)가 주관했으며, 마을 리더, 지역 활동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내가 살고 있는 마을과 공동체 그리고 마을 만들기는 무엇일까요?'라는 주제로 문을 연 마을대학은 민관 협치, 마을만들기 사업, 공동체 관련 지원정책, 지역리더 역량강화 등 청양에 필요한 지원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강 첫날 복권승 '공동체 세움' 대표는 '마을이란? 청양지역 마을을 중심으로'라는 강의를 통해 ▲향촌사회와 마을의 역사 ▲갈등-기록과 규약의 시작 ▲갈등을 해결하며 시작되는 마을의 조직들 ▲마을의 변화 ▲마을로 통하는 다양한 길 ▲마을의 경제활동과 5일장 ▲마을의 공동체 회복 등을 주제로 청양군의 지리적, 문화적 사례를 소개했다.

청양=정상범기자

건양대 임상병리학과 '학부생 연구프로그램'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 선정

건양대학교(총장 이원묵) 임상병리학과(학과장 김평환) 생체재료 및 줄기세포 융합 연구동아리 'FUSION'이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안성진)이 주관하는 '학부생 연구프로그램(URP)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학부생의 창의적 연구역량을 향상시키고 자기 주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과학기술, 융합과학 및 시뮬레이션 활용 분야 연구활동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건양대 임상병리학과는 오는 12월 까지 6개월 간 'Microglia에서의 GBP-1 유전자 발현 감소에 의한 치매 치료의 효능기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며 약 52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김평환 건양대 임상병리학과 학과장은 "이번 사업에 선정되어 임상병리사 외 의생명 과학 분야 연구원과 같은 재학생의 다양한 사회진출 경로를 확보한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역량에 맞는 교육과 다변화하는 사회에 따른 맞춤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당진시, 하절기 방역소독 실시

친환경 연무소독으로 주민불편 최소화

당진시 보건소는 본격적인 장마철과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날벌레와 해충의 개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하절기 일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살충제 침입이 힘든 하수구와 화장실 공원 등 넓은 지역에는 연막소독을 진행중이며, 다중이용시설과 인구밀집지역에는 친환경 연무소독을 병행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친환경 연무소독기는 초미립분자 분무기를 사용해 물과 약제를 혼합 및 압축한 다음 안개 형태로 분사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연무소독기와 달리 경유를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며, 안개처럼 보이는 연막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아 보다 더 안전하다.

또한 친환경 연무소독은 가열에 의한 약제 손실이 없으면서도 살충효과가 뛰어나 주간시간에는 효율이 떨어지는 연막소독과 달리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방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보건소는 하절기 방역 소독과 더불어 어린이 교통공원과 왜목마을, 석문 분수공원, 난지섬 해수욕장 등에 포충기 35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LED 램프 파장을 활용해 하루살이와 모기 등의 해충 퇴치에도 한창이다.

당진=최근수기자

대전경찰청 '보험범죄' 근절 나선다 대전경찰청(청장 황운하)은 3일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생명보험 · 손해보험협회 관계자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범죄 근절 수사협의회'를 개최했다.

청양소방서, 119시민수상구조대 발대식 청양소방서(서장 류일희)는 3일 김기준 부군수, 청양군의용소방대 연합회 임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피서객의 물놀이 안전 확보를 위한 119시민수상구조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위촉장 수여 ▲결의문 낭독 ▲시민수상구조대장 발대사 등 1부 발대식 행사와 ▲2부 심폐소생술 시연으로 마무리 됐다.

서천소방서, 음주운전 근절 특별교육 서천소방서(서장 최장일)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공직자로서 품위손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여부 점검 및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대전충남병무청, 반부패 · 청렴 교육 대전충남지방병무청(청장 정복양)은 3일 청내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산경찰서 인주파출소 이형섭 경사

심정지 자살기도자 심폐소생술로 구조

아산경찰서(서장 김보상)인주파출소(소장 김종범)에서는 지난 2일 오후 9시 50분경 아산시 인주면 아산만방조제 과적검문소 부근에서 자살기도로 심정지 된 50대 남성 A씨를 발견해 구조했다.

'남자친구가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하려고 한다.'는 최초 신고가 인천청으로 접수됐으며, 타청 지원 요청에 출동한 인주파출소 인병국 경위와, 이형섭 경사가 A씨의 핸드폰 위치값(GPS) 주변을 수색하던 중 내부에서 연기가 나고 있는 차량을 발견하고 신속히 차량내부를 확인해 운전석에서 의식을 잃은 A씨를 구조했다.

A씨는 최초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으나 이형섭 경사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10여분 후 심장박동이 회복됐으며, 이후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차량으로 병원에 후송됐다.

이형섭 경사(사진)는 "심폐소생술을 평소 알고는 있었지만 최근 아산경찰서 교육시간에 좀 더 정확하게 배웠던 적이 있어 당황하지 않고 적절하게 구조 활동을 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일반마스크 미세먼지마스크로 허위광고' 무더기 적발

식약처 · 특허청 합동… 허위 · 과대광고 437건,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올해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169곳과 시중 유통 제품 50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집중점검 한 결과, 허위 · 과대광고 437건, 품질 · 표시 위반 8건,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 등 총 1,125건을 적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제품의 성능, 특허표시 관련 허위 · 과대광고 여부와 품질 · 표시사항을 확인하여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선택과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 결과 전체 5,084건 중 허위 · 과대광고 437건을 적발하였으며, 주로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404건)였고,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한 사례(33건)도 있었다.

아울러 시중 유통되는 보건용 마스크 50종을 수거 검사한 결과, 품질 · 표시 위반 8건을 적발하였으며, 위반 내용은 제조번호나 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않는 등 표시 부적합 7건과 성능시험 부적합 1건이 있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허위 · 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성능시험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을, 표시 부적합 제품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점검 결과, 전체 10,714건 중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을 적발하였으며, 주로 등록기간이 만료되어 소멸된 권리번호를 표시한 사례(450건)와 특허를 디자인 등으로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187건)가 있었다.

특히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번호 표시(36건), 심사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4건),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시(3건) 등 소비자 오인으로 인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 및 판매 중지 등 시정 조치 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식재산권을 올바르게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올바른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위해서는 제품의 용기나 포장의 '의약외품' 문구를 확인하고, 제품에 기재된 사용방법이나 주의사항을 확인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와 특허청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소비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허위 · 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유통과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사례에 대해 식약처와 특허청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정복기자

아산소방서, 아산공고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아산소방서(서장 김성찬)는 지난 2일, 아산전자기계공고 교직원 50명을 대상으로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심폐소생술 및 생활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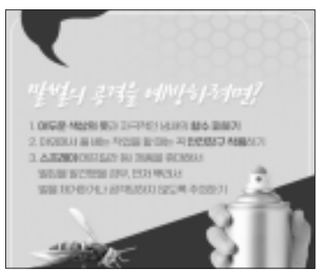
심폐소생술은 호흡과 심장이 멈췄을 때 인공호흡으로 산소가 충분히 포함된 혈액을 가슴압박을 통해 온몸으로 순환시켜 궁극적으로 뇌를 살리는 응급처치 기술이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심정지와 뇌손상, 생존율을 높이는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동영상과 실습을 통한 실질적인 강의로 교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는 아산소방서 현장대응단 구급팀(☎041-538-0312)로 신청하면 된다.

아산=리량주기자

논산소방서, 여름철 말벌신고 급증… 주의 당부

여름철 신고 잇따르고 있어… 말벌 쏘임 주의 당부



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최근 말벌 개체 수가 급증하는 여름철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말벌 쏘임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말벌은 주로 사람의 목 윗부분을 중심으로 공격하는 성향이 있어 말벌의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는 자세를 낮춰 머리를 보호하고 신속하게 벌집으로 최소 2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말벌로부터 쏘였다면 신용카드 등으로 상처 부위 독침을 제거하고 얼음찜질을 하도록 한다. 얼음이 없을 경우 시원한 물로 씻어 주는 것도 좋다.

말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외활동 시 향수나 헤어제품 등 강한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의 사용 자제 ▲풀베기 등 야외작업 시 안전장구 착용 ▲청량음료나 단 음식 등 노출 자제 등을 당부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말벌 피해로부터 안전에 유의하고, 벌에 쏘인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논산=김성구기자

대전마케팅공사-상대초 '통일교육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통일교육 활성화 위한 산 · 학 협력 업무협약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최철규)와 대전상대초등학교(교장 김주대)는 7월 2일(화) 대전상대초등학교 교장실에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산 · 학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날 양 기관은 대전지역 내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공동 인식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학생, 청소년, 성인 등에 대한 통일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미래 통일 세대를 양성하고 지역사회 통일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하여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협약은 양 기관에서 추진하는 통일교육 프로그램과 상호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한 통일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대전상대초등학교는 대전시 교육청에서 '통일교육 시범연구학교'로 지정되어 향후 2년간 통일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학생의 재능과 적성을 고려한 진로체험형 통일교육 수업모델을 연구하여 미래지향적 통일교육 중점학교로 선정되었다.

대전마케팅공사 최철규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전통일관을 활용하여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 · 활성화함으로써 통일교육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기자

서산소방서, 풍수해 대비 수방장비 점검

시민의 안전 확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위해

서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풍수해에 대비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난 장비 점검 및 사용법 숙지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태풍 · 호우 · 강풍 등으로 인한 인명 · 재산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한 인명구조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동식 동력 소방펌프, 수중 펌프, 대형양수기 등 각종 풍수해 관련 수방 장비와 고무보트 등 수난 인명구조 장비를 점검하고 수난 인명구조 장비의 조작 숙달 훈련도 병행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 조작훈련을 통해 수방장비 조작능력 향상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고, 수해 발생시 119로 신고하면 언제라도 출동하여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산=김정한기자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노란발자국' 설치

도로교통공단 대전 · 세종 · 충남지부

도로교통공단 대전 · 세종 · 충남지부(지역본부장 박원범)는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동안미소한의원(원장 김진혁), 대전녹색어머니연합회(회장 홍현미)와 업무협약을 체결, 7월 중 대전 지역 4개 학교에 노란발자국을 설치한다.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 사업(일명 "노란발자국 설치 사업")은 도로교통공단 대전 · 세종 · 충남지부와 대전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목표로 추진하게 됐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활동 등 국내외 다양한 활동으로 나눔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동안미소한의원 · 대전사랑메세나의 대표인 김진혁 원장의 후원으로 결실을 맺게 됐다.

3일 대전둔산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대전 지역 4개 학교 횡단보도 부근 인도에 노란발자국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지역 어린이들의 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병배기자

공주소방서, 여름 휴가철 차량화재 주의 당부

공주소방서(서장 박찬형)는 여름철 무더위 및 휴가철을 맞아 차량관리 소홀 등으로 차량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차량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무더위에 냉각수나 오일 등에 대한 점검 없이 에어컨을 무리하게 가동하거나 장거리 운행으로 인한 엔진과열 또는 전선의 노후화, 교통사고에 의한 화재 발생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운행을 피하고 운행 전후 각종 오일, 냉각수와 타이어 상태점검 ▲엔진룸 청소 및 노후 전선 수시 점검 ▲차량 실내에 가스라이터나 부탄가스를 보관하지 말아야하며, 특히 강한 햇볕 아래에 주차할 때에는 좌우 창문을 약간 내려 두는 것이 안전하다.

공주=정상범기자

윤순중 충남도 소방본부장, 서동연꽃축제 행사장 방문

서동연꽃축제 안전대책에 '총력'

윤순중 충남소방본부장은 3일 부여서동연꽃축제 행사장 현장을 방문해 전반적인 소방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부여서동연꽃축제 행사의 안전을 위해 축제기간 주말과 휴일에 1일 40여명의 소방대원과 구급차 · 펌프차 · 구조보트를 활용하여 관광객의 안전을 책임진다. 이번 축제에서는 심폐소생술과 소화기 사용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도 운영한다.

윤 본부장은 축제 행사 전반에 대한 소방안전대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긴급상황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통해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행사장 소방현장지휘본부 및 수상안전센터를 방문해 근무 환경과 운영 사항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윤순중 도 소방본부장은 축제 행사장 안전과 관광객들 안전사고 방지를 당부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김정환기자

"천만원 이상 횡령 사학이사 퇴출" 건의

사학혁신위, 65개 사립대 조사 · 감사…755건 부당행위 적발

교육부 사학혁신위원회가 1년 6개월간의 활동 결과를 마치고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1000만원 이상의 배임 · 횡령을 저지른 학교법인 이사나 이사장은 퇴출시키자는 게 골자다. 지금까지는 교육부가 시정요구를 내린 뒤 이행되지 않을 때 임원승인 취소가 가능했다. 교육부는 관련 권고를 받아들여 법령 개정에 착수할 전망이다.

교육부와 사학혁신위는 3일 이러한 내용의 사학혁신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사립대의 횡령과 회계부정, 족벌경영 등을 막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지난 2017년 12월 자문기구인 사학혁신위를 출범시켰다. 사학혁신위는 이날 그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사학 공공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10가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권고했다.

사학혁신위가 지난 1년 6개월간 감사나 실태조사에 착수한 사립대는 65곳으로 총 755건의 위법 · 부당행위가 적발됐다. 특히 실태조사와 종합감사를 실시한 35개 대학의 경우 441건의 적발건수 중 53%(233건)가 회계 등 금전비리에 해당했다. 나머지 11.3%(50건)은 인사 비리, 10.4%(46건)은 학사 · 입시 비리로 분류됐다.

사학혁신위가 진행한 실태조사 · 감사에서는 총장 관련 비리가 다수 적발됐다.

골드바 30개를 사서 전 · 현직 이사 3명에게 나눠준 총장도 덜미가 잡혔다.

현재 학교법인 이사를 겸직 중인 한 대학 총장은 자신의 조카와 손녀를 공개채용 · 면접전형 없이 각각 법인직원, 대학직원으로 특별 채용했다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한 편법도 드러났다. 모대학은 학업의사가 전혀 없는 교수 · 직원의 지인 307명 등을 만학도로 충원한 뒤 등록포기원을 제출토록 했다. 교육당국의 충원율 집계가 끝난 뒤 자퇴처리를 해주는 방식으로 충원율 지표를 끌어올린 것. 30명 정원의 학과를 운영 중인 또 다른 대학은 지원자 전원을 합격시켜 모두 61명으로 학과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사학혁신위는 755건의 적발사례에 연루된 학교법인 임원 84명에 대해 임원승인을 취소했다. 755건 중 추가 조사가 필요한 99건(관련자 136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사학혁신위 활동 결과 모두 2096명이 '주의'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사학혁신위는 이어 사학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 10가지 제도개선안을 권고했다. 먼저 1000만 원 이상을 배임 · 횡령한 임원에 대해서는 곧바로 임원승인을 취소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지금까지는 교육부가 시정요구를 내린 뒤 이행되지 않을 때 임원승인 취소가 가능했다. 비리 임원의 임원승인 취소가 가능하려면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위원회는 또 결격사유가 발생한 임원은 당연 퇴직하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총장 업무추진비 공개를 의무화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요구했다.

학교법인을 견제 · 감독하기 위한 개방이사의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대학 설립자나 기존 임원, 총장 등은 개방이사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하고,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를 공시토록 하는 방안이다.

이정복기자

당진교육지원청, 공무원 진로직업체험

2019 자유 학년제 자유학기 활동 활성화 지원

당진교육지원청은 3일 면천중학교 학생 17명을 대상으로 '2019 자유학년제 연계 당진교육지원청 공무원 진로직업체험'을 실시했다.

당진교육지원청은 2019년 자유 학년제 자유학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와 행정과가 협업해 이번 진로직업체험을 지원했다. 프로그램은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다양한 공무원 · 다양한 그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자 청사 투어와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다.

투어는 대회의실, 교육장실, 교육과, 행정과, 지원센터동 순으로 이어졌다. 또한 한홍덕 교육장, 윤희송 교육과장, 안민호 행정과장 등이 인터뷰이로 참여해 현직 공무원들의 경험담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다음으로 '현장 공무원 진로적성 특강'에서 공무원의 자질, 공무원이 되는 길, 공무원의 생활을 알아보고 퀴즈를 풀면서 진로직업체험의 깊이를 더했다.

당진교육지원청은 참가 학생들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역량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세종시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참여시민 대상 연수 개최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6일까지 3주간 세종시교육청 대강당과 조치원교동초등학교에서 '세종마을교육공동체'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양 청송초 '푸른솔 도서관' 개관

청송초등학교(교장 황화연)는 지난 2일 10시부터 청송초등학교 다목적실에서 맥킨지 한국사무소 대표, 김수연 (사)작은도서관 만드는 사람들 대표, 교육장, 지역주민, 학부모,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마을 도서관 개관식을 가졌다.

본교는 꾸준히 학교 도서를 지역주민들에게 대여했으나 도서관이 없어 그동안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률이 저조했다.

따라서 도서관을 단독 건물로 지어 지역 주민에게 도서관을 개방해 지식교류의 장을 열고 마을교육공동체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학교마을 도서관 개관식을 거행했다.

개관식은 책버스의 스토리텔링 공연을 시작으로 도서관장 위촉장 수여, 기증서/감사패 전달, 후원사인 맥킨지 한국사무소 대표 인사, 김수연 (사)작은도서관 만드는 사람들 대표의 책 이야기, 본교 오카리나부의 축하공연으로 이어졌다.

개관식에 앞서 실시된 학생 글짓기 대회 및 주민백일장 시상, 도서관 이름 공모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청양=정상범기자

낙동초, 소규모학교 공동교육과정 체험학습

낙동초등학교(교장 황의태)는 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20분까지 3,4학년 학생 및 인솔교사와 함께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이는 천북초, 오천초와 함께 운영하는 소규모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으로서 소규모 학교의 인적 · 물적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과 학생, 학생과 학생의 관계 맺기를 통하여 학생들의 역량과 참학력을 기르기 위함을 목적으로 운영됐다.

체험학습에서는 3~4학년 사회 교과의 '우리 고장의 공공기관 소개'를 주제로 한 프로젝트 학습을 전개하고자 보령시 청소년수련관에 방문하여 우리 고장의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을 알아보고,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해보았다.

먼저 아이들은 보령시 청소년수련관을 둘러보며 청소년수련관의 구조와 하는 일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들었다. 특히 야외의 암벽등반 체험장이 아이들의 시선을 끌었다. 개략적인 설명이 끝나고, 학생들은 학년별로 'FUNFUN스쿨'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보령=김정미기자

개정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5일부터 시행

충남교육청, 부당정정 대해 징계요구기준 새롭게 담고 있어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공무원 업무태만(부작위),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비위 등에 대한 징계 요구기준을 담아 개정한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비위사건 처리규정은 공무원 성실의무와 관련해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정정에 대해 징계요구기준을 새롭게 담고 있다. 기존 규정에서 시험문제 유출과 학생성적 조작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던 것을 더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와 부당행위 은폐,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요구 기준도 마련했다.

품위유지 의무와 관련해서는 성폭력 비위에 대한 징계요구 기준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내용을 개정했다. 기존 규정이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었다면, 개정 처리규정에서는 정신적, 정서적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징계요구기준을 마련한 게 특징이다.

또한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을 개정된 교로교통법에 맞췄으며, 최초 음주운전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 나올 경우 중징계하는 등 징계요구기준을 강화했다.

충남교육청 유희성 감사관은 "공무원들의 의무위반 행위, 각종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한다"며 "모든 공직자가 건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특수교육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논산계룡교육지원청, 학부모 힐링음악 및 소통 · 공감 미술교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유미선)은 2일 오후 4시 통합교육 연수실과 새꿈터에서 관내 장애학생 가족 20여명을 대상으로 2019 특수교육지원센터 가족지원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건강한 가족 만들기를 위한 이날 프로그램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학부모 힐링음악교실(강사 차혜연)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소통 · 공감 미술교실(강사 황은희)로 진행됐다.

학부모들은 별도의 공간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보공유의 장이 됐으며, 장애학생과 형제 · 자매들은 주어진 미술과제를 협동으로 완성해가며 서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유미선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구성원간의 소통하며 화합하는 장이 마련되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에 계속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며 운영의 지속성을 당부하였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가족지원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마다 실시되며, 2019년 10월 말까지 운영된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논산=김성구기자

세종시교육청, 7월 16일까지 접수

'국민생각함' 활용 정책토론 실시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방과후 돌봄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19년 제2차 온라인 정책토론」을 실시한다.

이번 온라인 정책토론은 오는 7월 16일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방법은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에 접속한 후 온라인 정책토론 배너를 클릭하거나 또는 국민생각함 누리집*을 통해 바로 접속할 수 있다.

*http://idea.epeople.go.kr/idea/pollView.do?ideaCd=190619-00021&ideaImproveSeq=0000000001

세종시민이라면 누구나 온라인 정책토론에 참여할 수 있으며 PC나 모바일에서 별도의 회원 가입 절차 없이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구글의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토론은 제1회 온라인 정책토론 결과와 연계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제1회 토론에서 시민들에게 온라인 정책토론의 주제로 가장 적합하다고 선정된 '돌봄'을 주제로 실시되고, 토론 결과는 세종 교육 정책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세종=김태선기자

시내버스환승센터 더위 · 미세먼지 잡아

아산시, 신개념 냉방장치 쿨링포그와 에어커튼 설치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모종 시내버스 환승센터에 무더위와 미세먼지를 잡는 신개념 냉방장치 쿨링포그와 에어커튼을 설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약자 등의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모종동 시내버스 환승센터에 쿨링포그와 에어커튼을 결합한 냉방장치를 설치했다.

이 냉방장치는 44개의 에어커튼과 132개 노즐이 결합돼 있다. 노즐에서는 일반 빗방울의 약 100만분의 1 크기인 20㎛(마이크론) 이하의 물이 고압으로 분사돼 에어커튼의 바람과 함께 빠르게 기화되면서 주변온도를 약 5℃이상 낮춰준다.

또한 고압으로 분사된 미세한 물 입자는 주변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청량감을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쿨링포그에는 상수도를 다시 정수한 깨끗한 물을 미세하게 분사해 옷이나 피부가 젖지 않으며, 건강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시는 실질적인 온도저감 효과를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모니터링하고 이용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로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해 이용자가 많은 시내버스 정류장에 추가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아산=리량주기자

상반기 민원분야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대전 동 · 서부교육지원청, 민원행정서비스 이용고객 대상

대전동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두, 이해용)은 2019년 상반기 교육지원청 민원행정서비스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7월 2일부터 한 달 간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객만족도는 민원처리의 신속성 · 공정성 · 민원처리의 만족도 등 총 7개 항목이며,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의견 수렴과 민원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연 2회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지난 2018년에는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만족도가 동부교육지원청은 98%, 서부교육지원청은 97%의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조사는 상반기 동 · 서부교육지원청 민원처리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현장 설문이나, 온라인으로(동 · 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설문조사') 참여할 수 있다.

동부교육지원청 조승식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고객 만족도 조사로 민원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동부교육지원청을 이용하는 고객과 소통하고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대전복지관, CMB "남진아의 청춘을 돌려다오" 촬영 지난 2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전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미)에서는 CMB 청춘리턴대 프로젝트 "남진아의 청춘을 돌려다오" 프로그램을 촬영했다.

●동 정●●●

농어업회의소 친환경농업 교육

황선봉 예산군수= 4일 오전 10시 황새공원에서 열리는 농어업회의소 친환경 농업 교육에 참석.

생태교란식물 제거 홍성군 민 · 관 손잡아

홍성군은 최근 왕성한 번식력으로 군락을 이루며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생태교란식물을 퇴치하기 위해 민 · 관이 힘을 합쳐 본격적인 퇴치사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축산업이 특히 발달한 홍성군은 생태 교란식물 군락지가 인근 지자체에 비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특히 가시박, 돼지풀 등 생태 교란식물은 번식력이 왕성한데다 군락을 이루어 초본류 토착식물의 광합성을 못하도록 고사시켜 전국적으로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군은 2018년부터 시책사업으로 생태교란식물 퇴치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 6월 군내 4개 읍 · 면 약 6만5천 평의 서식지에 대해 퇴치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군은 홍성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백청기)와 함께 올해부터 군내 생태교란 외래 식물 분포도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퇴치 사업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3일에는 야생동물 보호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야생생물협회 대전충남지부 홍성지회(지회장 현병태) 회원 40여 명이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홍북읍 삼교천 일원의 가시박, 돼지풀 등 대량번식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작업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생태계 회복을 위해 민 · 관 단체 합동으로 지속적인 생태계교란식물 퇴치작업을 추진 중이며, 전 군민이 관심을 갖고 생태교란 식물로 의심되는 군락지가 있으면 군청 환경과(☎041-630-1458) 또는 홍성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041-632-291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세종시 종촌동 주민센터가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하반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기간은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이며, 모집 프로그램은 상반기에 운영되었던 45개 프로그램에 10개 신설 프로그램을 더한 총 55개로, 모집인원은 총 1,389명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상반기 악기연주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수강생들이 한 단계 높은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난이도를 높인 프로그램을 다수 신설했다.

또, 청소년을 위한 방송댄스, 직장인들을 위해 야간시간대에 다이어트 장구, 다이어트 댄스 등의 프로그램도 신설됐다.

하반기 종촌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종촌동 주민자치사무국(☎044-865-6650)으로 문의하면 된다.

홍두표 종촌동 주민자치위원장은 "하반기에는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했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 아름다운 숲 3곳 국가 산림문화 자산 지정 신청

이용 확대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

충남도는 생태, 경관 및 정서적으로 가치가 높은 아름다운 숲 3곳을 발굴, 국가 산림문화 자산으로 지정받기 위해 산림청에 신청했다.

도가 국가산림문화 자산 지정을 신청한 숲은 ▲아산 아름다운 가로수길 ▲서천 소나무 해안 방풍림 ▲홍성 소나무와 정금나무 군락지 등이다.

아산 아름다운 가로수 길은 은행나무로 평균 수령이 50년 이상으로 역사 · 문화, 자연 경관이 공존하는 명품 숲길로 꼽힌다.

서천 방풍림은 곰솔을 조림한 해안 방풍림으로, 해안가의 솔바람 길과 하층의 식생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고 있다.

홍성 소나무 숲은 80년생 내외의 소나무와 정금나무가 자생하는 군락지로, 보존이 필요한 지역으로 후대 물려줄 아름다운 숲이다.

이 3곳의 숲이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되면, 산림교육, 체험, 치유 숲길과 연결한 등산로 활성화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산림관광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영규 도 산림자원과장은 "국가 산림문화 자산은 우리의 우수한 전통문화 자산을 후대에 물려주는 좋은 정책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국가 산림문화 자산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 내 숲, 나무, 자연물, 유적지 등 보존가치가 높은 자산을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정되면 국가로부터 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해당 지역을 보전 · 관리하며, 이용 확대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적으로 46곳이며, 도내에는 안면도 소나무 숲 1곳이 지정되어 보전 · 관리되고 있다.

김정환 기자

홍성군 도로 포장율 96%

2013년 86.4% → 2017년 96.6%로 4년 만에 '껑충'

충남 홍성군이 지역발전 지표 중 하나인 도로 인프라가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홍성군이 밝힌 통계지표에 따르면 홍성군의 도로연장 길이는 2013년 322,886m에서 2017년 331,788m으로 크게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로 포장율의 경우 2013년 86.4%에서 2017년 96.6%까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 평균 도로 포장율 93.2%와 충남도내 평균 도로 포장율 92.5%를 상회하는 수치로 충남 수부도시로서의 지역발전상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군은 밝혔다.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취약한 군도의 포장율도 92.7%에 달했다.

홍성군은 도로망 확충이 지역균형 발전을 이끄는 초석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내포신도시와 구도심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북서부 순환 도시계획도로 22개 노선의 도시가로망 정비 사업에 착수했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 4개구간 확포장 공사를 완료했다.

소향리, 대교리 일원에서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까지를 잇는 북서부 순환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우선 1차구간인 지방도 609호에서 소향삼거리까지 200억의 사업비로 연장 1,600m, 폭 24m 순환도로망을 구축할 계획이며 올 하반기 보상절차에 착수해 2021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구도심내 도로 간선망 확충을 위한 신동아 아파트~대왕주유소 도로확장 사업과 원우빌라와 홍성여중 맞은편 구간을 포함한 대교리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올해 6월 사업을 완료한 상태다.

또한 주거밀집지역 교통흐름 개선 및 물류운송체계 확충을 위해 홍성읍 오관1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18개 도로 개설공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 군은 6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도 추진 중이다. 세청파크빌아파트 진입로 선형개량 외 18개 구간이 사업 대상이며, 군은 사업을 통해 병목 현상 해소 등 도로 여건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농로 포장 및 경지정리지구 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도 40억의 사업비로 70개 구간에 대해 사업을 완료했다.

군 관계자는 "도로 인프라 확충은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요소"라며, "도로관련 지표가 도청 수부도시의 위상에 맞게 크게 개선되고 있는 만큼 내포신도시와 구도심간 접근성 향상과 구도심내 체계적인 교통 연계망 확충을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예산형 청년일자리 및 공익일자리

예산군 하반기 사업 확대 추진

예산군은 관내 청년들에게 지역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군민에게 공공서비스 운영 관련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2019년 하반기 예산형 청년일자리 및 공익일자리사업'을 오는 12월 20일까지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취업애로계층의 생활 안정과 지역활력을 위해 추진되는 하반기 지역 공공일자리사업은 올해 상반기 대비 8명을 증원한 96개 사업장에 142명의 근로자가 복지, 안전, 환경 분야의 필요한 공익일자리에 배치돼 근무하게 된다.

사업참여자 중 청년일자리는 주 40시간, 공익일자리는 주 15~25시간 단위로 근무하며 급여는 시간당 8350원이고 주휴수당과 별도의 부대비가 제공된다.

군 관계자는 "사업 참여자들에게 공익일자리 제공뿐 아니라 직업훈련 및 취업박람회 개최, 구인 · 구직 매칭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민간일자리로 취업 연계하겠다"며 "특히 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조 지사, 외자유치 대만 출장

올 상반기 미국 등 3개국에서 대규모 외자유치를 성공한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박2일 일정으로 대만 출장길에 오르며 하반기 외자유치에 파란불을 켠다.

양 지사는 4일 대만을 찾아 이틀 동안 글로벌 우량 기업 2개사와 외자유치 협상의 마침표를 찍는다.

대만 출장 첫 날인 4일에는 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 생산 세계 3대 기업으로 꼽히는 G사와 타이베이에 마련된 최종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는다.

지난해 도와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천안에 공장을 건립 중인 G사는 생산라인 증설을 위해 추가 투자를 계획 중이다.

5일에는 타이베이 인근 타오위안시에서 S사와 외자유치 협약을 체결한다.

S사는 휴대폰 주파수 필터 생산업체로, 사업 확장을 위해 천안 외국인투자지역 내 공장을 매입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는 지난해 수립한 중화권 기업 유치 전략에 매년 2개 이상 중화권 기업 유치를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라며 "이번에 MOU를 체결하면 작년 하반기 중국 2개 기업에 이어 2년 연속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시작부터 성공적인 외자유치가 기대되는 만큼, 다양한 전략으로 글로벌 우량 외투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공모사업 선정

예산군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생활문화센터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노후 된 건물을 리모델링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생활문화 공간으로 조성해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 생활 SOC사업의 일환이다.

군은 총 사업비 10억원(국비 4억원, 군비 6억원)을 투입, 예산문화원의 리모델링으로 노후건물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새로운 공간 구성으로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이용할 지역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계획단계에서부터 의견을 청취해 주민이 원하는 공간으로 조성해서 군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성구 기자

daejeontoday.com

소담초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실현 물꼬 트다

소담동 주민과 함께 마을총회 열려

소담초등학교(교장 황미애)는 오는 7월 5일 오후 7시 소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처음으로 마을 총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소담동 마을중심의 마을총회는 교육기관이 밀집하고 그 중심에는 행정복합기관인 소담동 복합커뮤니티 센터가 위치한 소담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함께하는 교육'을 위한 의견 수렴회의 형태로 열린다.

이번 총회는 소담동에 위치한 학교의 교사들과 소담동 주민들이 의기투합하여 '소담마을인생학교 준비위원회'를 발족하며 기획하게 됐다.

준비위원회는 학교의 학부모회 활동을 비롯해 세종시교육청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인 마을학교, 세종시청의 마을공동체 사업 등을 통해 성장한 학부모들과 세종혁신학교를 운영하며 배움의 장소를 학교를 넘어보자는 교사들이 모여서 구성됐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의 공연을 시작으로 ▲공동육아부터 어르신 배움터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온 마을 사람들이 배우고 가르치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 마을을 안전한 배움터로 만들 수 없을까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가르칠 수 없을까 ▲우리가 마을학교를 만들 순 없을까 등을 주제로 모둠별 테이블 토론과 공유과정으로 진행된다.

아이 돌봄, 행사 진행 등 행사에 도움을 준 학생과 주민들에게는 '1365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등 참여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금값' 새조개 완전양식 가능해져

도수산자원연구소, 새조개 치패 대량 생산 기술 개발 성공

생산량 급감으로 '금값'을 주고도 구하기 어려운 새조개를 쉽게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소장 임민호)는 새조개를 안정적이고 대량으로 인공부화 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3일 밝혔다.

새조개는 새부리 모양과 비슷하게 생겨 붙여진 이름으로, 쫄깃한 식감과 바다향 가득한 맛 때문에 서해안 대표 겨울철 별미로 각광받고 있다.

새조개는 그러나 2003년 1156톤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내리막길을 거듭, 2012년 이후에는 통계청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생산량이 급감했다.

홍성군이 어장관리실태조사를 통해 비공식 집계한 군내 생산량은 100톤 안팎에 불과하다.

도 수산자원연구소는 남획으로 인한 어미 자원 붕괴,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등 등을 생산량 급감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도 수산자원연구소는 2016년 도내 새조개 모패를 활용한 인공부화 기술 개발에 착수, 4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연구 첫 해 새조개 인공 산란 기술을 우선 확보했다.

2017년에는 인공 성 성숙 유도 기술을 개발하고, 새조개 부유 유생 관리 기술을 확립했으며, 먹이생물 배양관리 시스템도 구축했다.

지난해에는 생식소 발달에 필요한 모패 최저 비만도를 확인하고, 종자 생산 시험연구를 통해 2㎜ 크기의 새조개 치패를 사육 ·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

특히 올해에는 대량 인공 산란 유도를 통해 어린 새조개 생산에 처음으로 성공했다.

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앞으로 천수만 새조개 자원 회복, 치패 생산 기술 고도화 및 완전양식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원 회복 연구는 올해 생산한 0.5~1㎝ 크기의 새조개 치패를 최근 홍성 죽도 인근 바다에 살포하며 본격 시작했다.

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이 새조개가 천수만 생태계 변화에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는지 환경 내성 시험연구를 추진한다.

새조개 치패 생산 기술 고도화 및 완전양식 연구는 지난 4월 문을 연 친환경양식특화연구센터를 활용해 진행한다.

새조개 먹이생물인 미세조류 대량 배양, 치패 중간양성 연구 및 고밀도 사육 관리 기술 개발 등을 추진, 궁극적으로 저수조 등 육상 양식장에서의 완전양식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임민호 소장은 "전국적으로 일부 연구소나 민간 업체에서 새조개 치패를 생산 중이나 아직 기술이 완벽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번 치패 대량 생산 기술 개발은 새조개 자원 회복 길을 찾고, 완전양식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정환 기자

세종~인천공항 시외버스 조치원 경유한다

11일부터 1일 4회 경유… 북부권 주민 이용편의 증대 기대

오는 11일부터 조치원에서도 세종~인천공항행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운수업체와 관할 지자체인 충남도와 협의해 인천공항행 시외버스 운행 횟수를 4회 증설하고, 증설한 시외버스는 조치원을 경유해 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이용객들의 불편을 감안해 기존 운행하던 인천공항행 시외버스 노선은 변경하지 않는다.

조치원을 경유하는 인천공항행 시외버스는 조치원공영버스터미널에서는 04:30, 07:15, 10:05, 16:45에 출발하며,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서는 09:00, 11:30, 14:30, 19:05에 출발한다.

이에 따라 조치원을 비롯한 세종시 북부지역 주민들은 인천공항행 시외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나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두희 교통과장은 "신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이 불편한 북부지역 주민들이 인천공항 이용이 보다 편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동정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식

김홍장 당진시장=4일 오전 10시 당진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에 참석, 오후 2시 당진시청 접견실에서 열리는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식에 참석.

수련대회

김기재 당진시의장=4일 오전 10시 당진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에 참석.

관광정책 사례 수집

김돈곤 청양군수=7박 9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스페인을 방문해 우수한 농촌지역 관광정책 사례를 수집.

청양군 남양면 충남정신 방문교실 운영

청양군 남양면(면장 이정호)은 지난 2일 면사무소에서 면내 각 경로당 관계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정신 방문교실을 운영했다.

충남정신운동 청양군협의회가 주최한 이날 교실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도민을 육성하고 효행을 장려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운영됐다.

이정호 면장은 "충효 · 청렴 · 예의 · 선비 · 도전정신 등 충남정신운동은 끝없이 계속돼야 할 운동"이라며 "우리 모두 늘 마음에 간직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앞장서자"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태안군 해수욕장 오는 6일 일제 개장

27개 해수욕장 8월18일까지 44일간 운영… 시원한 여름의 낭만 선사할것 기대

서해안 대표 관광휴양도시. 태안군이 자랑하는 27개 해수욕장이 오는 6일 일제히 개장한다.

태안군은 오는 6일 8개 읍 · 면 총 27개 해수욕장이 본격 개장해 8월 18일까지 44일간 운영된다고 밝혔다.

태안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6월 1일 조기개장한 서해안의 대표 해수욕장인 만리포해수욕장을 비롯, 남면 몽산포해수욕장, '서해안 3대 낙조'로 손꼽히는 꽃지 해수욕장 등 아름다우면서도 특색있는 해수욕장들이 관광객을 맞이한다.

태안의 해수욕장을 이어주는 솔향기길과 해변길, 노을길 등 바다를 따라 이어진 아름다운 산책로와 더불어 해변마다 어우러진 울창한 소나무 숲 등 태안만의 황홀한 비경이 시원한 여름의 낭만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천리포수목원, 쥬라기박물관, 팜카밀레, 안면휴양림 등 태안의 주요 관광지도 본격적인 '관광객 맞이'에 나설 채비를 끝냈으며, 남면에 위치한 청산수목원에서는 6월 29일부터 8월 24일까지 '태안연꽃축제'가 열려 피서객들에게 색다른 매력을 보일 예정이다.

한편 태안지역 해수욕장 개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며, 군은 해수욕장 내 식품위생업소와 숙박업소에 대해 과다요금과 청결상태 불량등 불법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 · 단속하고 계절영업 업소에 대해서도 유통기한 및 위생 등에 대한 집중 지도에 나설 계획이며,

특히 4년 연속 해수욕장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안전관리요원 140명을 선발하고, 그 중 보조요원 5명을 제외한 해수욕장 안전요원 135명 전원을 안전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선발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도 깨끗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관리 및 운영체계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아름다운 꽃과 바다가 있는 태안에 많은 분들이 방문하셔서 행복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난지섬 · 왜목 해수욕장 개장

당진시, 오는 6일 개장해 내달 18일까지 44일간 운영

당진의 관광 명소인 왜목 마을과 난지섬 해수욕장이 이번 주말인 6일 일제히 개장해 8월 18일까지 44일 간 운영된다.

왜목 마을 해수욕장은 물놀이 외에도 해가 뜨고 지는 일출과 일몰을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기만 맞으면 바다에서 달이 뜨고 지는 월출과 월몰도 볼 수 있어 낭만을 꿈꾸는 연인들이 휴가를 즐기기에 그만이다.

또한 서해안고속도로 송악 IC를 빠져나와 38호선 국도를 이용하면 서울에서 2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는 점도 왜목 마을 해수욕장의 장점으로 꼽히며, 8월에는 피서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바다축제도 예정돼 있는 만큼 올해는 더욱 많은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 일반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요트아카데미와 해양래프팅과 카약, 서프보드 등 해양레저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교실도 운영될 예정이어서 해수욕 외에도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

2010년 행정안전부 선정 대한민국 10대 명품섬에 이어 2017년 '찾아가고 싶은 섬'에도 선정된 당진시 석문면 대난지섬에 있는 난지섬 해수욕장은 2015년 해수부가 선정하는 우수해수욕장에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과 함께 꼽힐 정도로 해수욕을 즐기기에 제격이다.

난지섬 해수욕장은 경사가 완만

하고 자갈이 부서져 만든 모래가 백사장을 이루고 있어 몸에 잘 붙지 않는 특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수욕장 주변에는 바지락과 굴이 서식하고 있어 갯벌체험이 가능하고 바다를 배경으로 섬을 걸어볼 수 있는 둘레길 트레킹도 가능하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또한 2017년부터 국민여가캠핑장(문의 : 당진항만관광공사 041-363-9229)도 운영하고 있어 해수욕장에서의 캠핑을 희망하는 피서객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청양군 장평면, 7월 이장회의 열려

청양군 장평면(면장 이원)은 지난 2일 면사무소에서 면내 이장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 회의를 열고,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원 장평면장은 자전거 · 오토바이 교통사고 예방, 2019 청양 칠갑산 마라톤대회 준비, 벼 먹노린재 적기 방제 등에 대한 주민 홍보를 당부했다.

또한, 장평면 갈등조정협의회 위원 추천 협조, 고추바이러스 발생상황 실태조사, 지하수 관정 방치공 현황조사 등 각종 면정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이원 면장은 "장마와 폭염이 눈앞에 닥친 만큼 시설물 관리와 면민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안전사고 없는 안전한 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청양=정상범기자

태안군 해안국립공원 구역조정 연구용역 보고회 열려

태안군이 국립공원 구역조정과 관련, 자체 연구용역을 진행해 환경부에 논리와 타당성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지난 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허재권 부군수, 관련 부서장, 용역사, 충남연구원 ·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 태안해안국립공원조정 주민협의회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환경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2019~2020년 공원계획 타당성조사 및 그에 따른 공원계획(공원구역) 변경 결정 · 고시 전, 군 자체 구역조정 타당성조사로 국립공원 경계의 재검토를 시행, 지역발전 제한 및 다양한 문제를 검토해 합리적인 구역조정(안)을 환경부에 제시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보고회는 용역 착수 보고,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용역을 맡은 한국자연환경연구소(주)는 내년 국립공원 구역 조정 시까지 ▲대상지의 여건 및 현황분석 ▲국립공원 관련 제도 분석 및 전망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국립공원 구역조정(안) 제시 ▲도면 제작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매 10년마다 환경부 주관으로 이뤄지는 이번 국립공원 용도지구 및 구역조정에 대해,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달 17일 안면읍 · 고남면을 시작으로, 18일 남면 · 근흥면, 19일 소원면 · 원북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조정에 따른 제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지난 2011년 제2차 국립공원 구역조정 및 제도개선을 통해 마을형성지역이 국립공원에서 해제됐으나, 일부에 제한돼 이에 따른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이에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과 관련, 군 자체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해 합리적인 구역조정안을 제시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다양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우/리/동/네

삼선산 수목원에서 여름방학 즐기자

당진시,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 물놀이장 개장

당진시는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오는 7월 23일부터 8월 18일까지 유아와 초등학생, 청소년, 일반인 및 가족단위를 대상으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산림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숲해설가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소품들을 직접 만들어 보는 목공체험 활동이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방문객은 이달 3일부터 8일까지 수목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참여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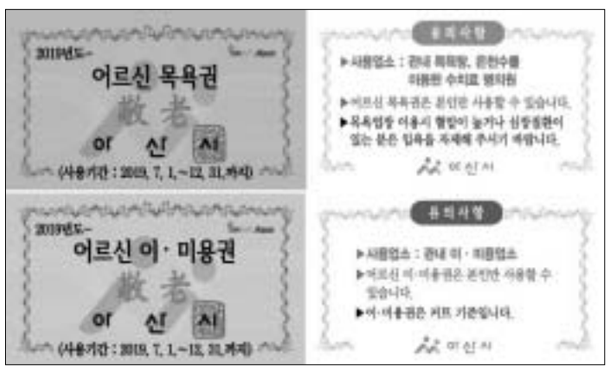
한편 삼선산 수목원에서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이달 15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수목원 내 물놀이장을 운영한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이용객 안전을 위해 45분 물놀이 후 15분 간 휴식 시간을 갖는다.

물놀이장 입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영복과 수영화를 착용해야 한다.

수목원 관계자는 "목공체험은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다양한 혜택은 물론 자연의 중요성을 깨닫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물놀이장 외에도 건강에 좋은 황톳길이 조성된 수목원에서 여름 무더위를 날리고 건강도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어르신 목욕권 · 이 · 미용권 배부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1인당 9매 지급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7월 5일부터 아산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2019년 하반기 어르신 목욕권과 어르신 이 · 미용권을 주소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배부한다.

어르신 목욕권 및 어르신 이 · 미용권 지원은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경로문화 확산과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아산시의 대표적인 노인복지 사업이다.

어르신 목욕권과 어르신 이 · 미용권은 하반기에 1인당 9매 지급되며, 아산시 소재 목욕탕, 미용실, 이발소에서 무료 이용할 수 있다.

65세 이상 아산시 거주 어르신들은 어르신 목욕권과 어르신 이 · 미용권 수령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되고 본인이 수령하기 힘든 경우 가족이 수령도 가능하다.

또한 시는 무더운 날씨에 어르신들이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읍 · 면 · 동장이 직원과 함께 경로당 등을 직접 찾아가 전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부터 어르신들의 목욕비 및 이 · 미용비를 확대 지원해 어르신 목욕권과 어르신 이 · 미용권을 지급함으로써 어르신들이 더 수준 높은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인복지 향상으로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청양군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여름철 식중독 사고를 막기 위해 다중이용시설과 식품조리 · 판매업소의 위생상태를 점검한다.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이어질 이번 점검은 충남도 및 타 시군과 합동으로 이루어지며, 점검 대상은 여름철 소비가 많은 냉면, 김밥을 비롯해 커피 · 음료 등을 판매하는 업소, 프랜차이즈 음식점, 빙과류 및 식용얼음을 제조하는 업체로 조리식품과 가공식품의 수거검사를 병행한다.

주요점검사항은 ▲무신고 영업 및 무신고 제품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여부 ▲조리 및 판매시설의 위생적 관리 여부 ▲조리 종사자 건강진단 및 개인위생 ▲보존 및 보관기준 준수 등이다.

청양=정상범기자

우/리/동/네

금강 백제보 단계적 개방 개시

부여군, 지역농민과 긴밀한 협력 통해 단계적 개방 추진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2일 백제보사업소(금강보관리단) 회의실에서 백제보 개방 민 · 관협의체 주민간담회를 갖고 7월 2일 오후 9시를 기해 보 개방 · 관측(모니터링)과 여름철 녹조대응을 위해 금강 백제보를 단계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당초 수막재배가 끝나는 4월 중에 백제보 수위를 해발(EL.) 1.4m로 전면 개방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부여 지역농민들이 시설하우스의 재배용수로 지하수를 많이 쓰고 있다고 판단하여 부여군, 지역 농민대표 등과 백제보 개방 전 용수공급 대책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 EL.(Earth Level or Elevation): 해발고도를 기준(인천만 평균해수면 높이를 0m)으로 하는 값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날 가진 백제보 개방 민‧관협의체 주민간담회 의견수렴 결과, 용수공급 대책으로 부여군 자왕리, 저석리에 지하수 관정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여름철 녹조대응을 위해 단계적으로 백제보를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백제보는 지난해 10월 전면개방을 하다가 수막재배, 시설하우스 농가의 지하수 이용에 따라 그해 11월부터 현재까지 개방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 관리수위를 해발(EL.) 4.2m로 유지해 오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7월 2일 오후 9시부터 10일 간격으로 수위를 해발(EL.) 0.5m씩 단계적으로 낮추는 식으로 보를 개방하여 7월 22일까지 수위를 해발(EL.) 2.7m까지 낮출 계획이다. 용수공급 임시대책(관정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8월 중으로 보를 전면 개방하여, 수위를 당초 목표였던 해발(EL.) 1.4m로 낮출 계획이다.

또한, 부여군은 백제보를 개방하는 과정에서 물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환경부와 인근 지자체(공주시, 청양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와 비상대응체계를 구축 · 운영하고 지하수 수위변화를 관측(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백제보 개방으로 금강의 물 흐름이 개선되어 녹조대응 및 보 개방 · 관측(모니터링)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수차례 밝혔듯이 백제보 전면개방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무엇보다 보 개방 과정에서 인근 주변 시설원예 농가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 초과 달성

서천군, 일자리사업 집행률 충남 군부 1위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결과 1,783억원을 집행해 당초 목표액 1,741억원보다 42억원 초과 집행하여, 102.39%의 집행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특히 군은 일자리 사업 예산 154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128.62%로 충남 군부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군은 연초부터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하고 6차례에 걸쳐 부서별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집행실적을 상시 관리하였으며, 특히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일자리 창출과 생활SOC 사업 등 군민생활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집행했다.

또한 551억원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3월 중 조기 편성하여 지역 현안사업의 적시 추진을 위한 동력을 마련하고, 재정집행에 따른 부서장 책임제를 강화하는 등 사업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관리 해왔다.

노박래 군수는 "하반기에도 지역 발전과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 합리적인 재정지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여군, 농업농촌 · 식품산업 발전계획 회의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지난 2일 부여군청 중회의실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실무 TF팀과 자문단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2023년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내용과 농업 중장기 비전과 전략, 정책 방향 및 계획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선7기 2년차 서천의 미래를 말하다

2년차 맞아 6대 신성장 동력사업 추진 및 가족행복도시 비전 달성

노박래 서천군수는 2일 오후 3시 장항읍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민선7기 2차년도에 대한 군정 운영방향을 밝혔다.

노군수는 임기 첫해를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해주신 군민들 덕분에 성공적으로 보냈다고 평가하며, 주요 성과로 제71회 충남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 국제슬로시티 도시 인증 및 3년 연속 시티투어 1만명 달성, 일반농산어촌개발 8개 사업과 어촌뉴딜 300사업, 세계유산 가족휴양․체험관광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으로 252억원 국비 확보 등을 뽑았다.

그리고 민선7기 첫 해가 주어진 당면과제 해결에 중점을 두었다면, 다가오는 2년차는 앞으로 서천을 100년 동안 먹여 살릴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을 선정하여 역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군수는 민선7기 2년차 서천군의 미래 발전을 선도할 6대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장항 브라운필드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통한 생태복원 프로젝트 ▲장항화물역 철도부지를 활용한 복합문화테마지구 조성 ▲장항국가산단과 연계한 해양바이오산업화 클러스터 조성 ▲지역관광자원을 활용한 머무는 문화관광 구현 ▲道 균형발전사업과 생활SOC 사업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구축 ▲농수산업 6차산업 고도화를 통한 주민 소득 창출 6대사업을 선정하고, 장기적인 군정발전 전략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6대 신성장 동력사업과 병행하여, 민선7기 핵심비전인 '가족행복도시 서천!'의 2년차 핵심계층인 아이들이 맘껏 뛰놀며 학습할 수 있는 서천군을 만들기 위해 '미래 교육의 빛! 아이들이 행복한 서천'을 슬로건으로 3대 전략, 10대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노군수는 "군민의 행복을 항상 최우선에 두고 모든 사업들을 추진하겠으며, 복합문화테마지구 조성 등 신성장 동력 사업들을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사업설명회에는 2차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이어 충남연구원 오용준 박사의 설명으로 장항 브라운필드를 국제적 수준의 인공습지 조성, 금강과 서해를 연결하는 하천 조성, 국립생태원 기능보완 및 환경해양 관련 공공기관 유치, 아트프로젝트 조성 등 정화와 힐링의 국가상징 모델로 추진한다는 구상안을 밝혔다.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시행계획 수립

오는 2023년까지 시민중심 기후변화 적응으로 행복도시 천안구축

천안시가 기후취약계층 없이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대책을 세우고 있다.

시는 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관계공무원, 자문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천안시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시는 취약성과 리스크 평가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분야와 지역을 분석해 천안시 특성을 고려하고,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이번 보고회는 1차 계획년도(2014~2018년)의 기후변화적응대책 추진 성과를 분석하고, 2차 계획년도(2019~2023년)의 부문별, 지역별 영향 예측 등 과학적인 취약성 분석으로 중점 추진분야를 선정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됐다.

취약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추세(저감없이)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경우 천안시 2040년 평균기온이 1.9도 올라가고 폭염일수는 15일 · 열대야일수는 17일이 늘어나며, 연 강수량은 194mm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건강 ▲재난 · 재해 ▲농업 ▲물관리 ▲산림 ▲생태계 ▲대기질관리 등 7개 분야로 나누고, 28개 부서의 87개 과제 세부사업을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노인, 아동 등 기후취약계층을 위해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펼쳐 기후건강복지를 실현하고, 미세먼지 점검을 위한 도로분진 흡입 차량을 지속해서 운영한다.

폭서기 폭염발생빈도 증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농작물, 도로 등에 살수되는 상수를 하수처리수로 대체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를 실시한다.

가뭄 상습피해지 대체작목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해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수입을 향상하며, 재해보험가입 활성화, 기후변화 적응 가축개량 및 관리기술 개발, 온난화에 따른 가축 질병 예방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물 부족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2023년까지 12개로 늘리고, 노후 상수도관 교체, 성환천 수계 수질개선 사업, 지속적인 가뭄대비 상수도 비상급수 대책도 수립한다.

이 외에도 산사태 취약지역 예방사업, 산림 병해충 방역, 숲 가꾸기 사업, 500만 그루 나무심기 녹색 프로젝트로 산림기능 회복력을 증진하고, 업성저수지 친수공간 조성, 생태계 취약지역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보고회 회의 내용을 토대로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에 반영해 환경부 협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김재구 농업환경국장은 "기후변화에 의한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천안도 최근 기록적인 폭염과 국지성 폭우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기후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정확히 반영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용역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민 교수와 함께하는 '기생충과 인간' 이야기

오는 8일 문화예술회관서 다섯 번째 시민아카데미

논산에서 만나는 특별한 인문학 강좌, 그 다섯 번째 만남이 오는 8일 저녁 7시 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진다.

이번 시민아카데미 강연은 기생충 박사로 잘 알려진 서민 교수를 초청해, '인간, 기생충에게 배우다'라는 주제로 기생충에 대한 편견 해소 및 기생충과 공존하는 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낼 예정이다.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서민 교수는 "서민의 기생충열전", "서민독서" 등 다수의 저서를 보유한 베스트셀러 작가로, KBS 아침마당, tvN 어쩌다 어른 등 여러 방송을 통해 기생충학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생충이 징그럽고 해로운 존재라는 편견을 깨고, 기생충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유쾌하고 의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앞으로 시민아카데미는 ▲김수영 작가(8.12)의 강연을 비롯해 ▲채사장 작가(9.16) ▲정재승 카이스트대 교수(10.14) ▲김경일 아주대 교수(11.11) ▲임진모 음악평론가(12.9) 등 사회 각 분야 저명인사들의 명품 강연이 남아있다.

논산시민아카데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과 평생학습팀(041-746-5772)으로 문의하면 된다.

논산=김태선기자

'대학생 국외연수 장학생' 캐나다 출국

계룡시, 5주간 어학연수 · 기업탐방 · 현장학습 진행

(재)계룡시애향장학회(이사장 최홍묵)에서 추진하는 「대학생 국외연수」장학생 20명이 2일 캐나다로 출국했다.

장학생들은 7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5주간 캐나다 토론토에 거주하며 센테니얼 주립대학(Centennial College)의 영어수업, KOTRA 토론토 무역관 방문, 기업 및 명문대학 탐방 등의 현장학습에 참여하게 되며, 계룡시 홍보대사로서 과제활동도 수행할 예정이다.

계룡시는 지역의 교육 인프라를 국제적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지난 2016년부터 전문성과 교육역량을 인정받은 선진국의 대학들과 교육협력 MOU를 체결하여 국외연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 센테니얼 대학은 온타리오주 최초 주립대학으로 연방정부로부터 두 차례 국제교육 부분 금상수상, 5개 캠퍼스 운영, 6만여 명 학생 수학 등 체계적 교육 시스템과 규모를 갖춘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계룡시가 유일하게 MOU를 체결하여 협력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장학회는 연수 종료 후 성과공유회 개최해 장학사업의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할 계획이며, 장학생들은 계룡시 국외 홍보 서포터즈로서 '계룡軍문화축제' 및 '2020 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 홍보에 참여할 예정이다.

장학회 관계자는 "학생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의 교육도시 건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 정

대만 출장길

구본영 천안시장=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간 일정으로 외투기업 유치에 따른 투자협약 체결을 위해 대만 출장길에 오른다.

워크숍

노박래 서천군수= 4일 오후 3시 희리산자연휴양림에서 열리는 2019년 민 · 관 사회복지학술 워크숍에 참석.

서동연꽃축제 행사장 점검

박정현 부여군수= 4일 오후 5시 궁남지 일원에서 제17회 부여서동연꽃축제 행사장 점검에 나선다.

지역어르신 위한 '힐링원예치료' 교육

계룡시, 원예활동을 통한 공감과 소통

계룡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는 2일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힐링원예치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계룡농업대학 심화과정(원예치료사 양성교육) 수료생 16명의 실습 및 재능기부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기위해 마련됐다.

이날 계룡시노인복지관을 찾은 수료생들은 농업대학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에게 식물 가꾸기, 식물을 이용한 작품 만들기 등 원예활동을 통한 공감과 소통으로 마음을 전했다.

원예치료 교육은 식물과의 교감으로 정서적 · 육체적 에너지를 얻고, 현대인의 생활 스트레스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줘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농업대학 수료생 강형천(엄사면)씨는 "농업대학 심화과정을 통해 배운 지식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어 보람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신체‧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사회적 약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센터 관계자는 "사회적 농업지도자 양성 및 계룡시의 도시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 ·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논산문화원 제2회 청년작가 초대전 열려

논산문화원(원장 권선옥)은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논산문화원 다목적홀에서 '논산 청년작가 초대전'을 개최한다.

지난해 처음 개최한 전시회는 논산 출신의 2~30대 젊은 작가가 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훌륭한 미술가로의 성장을 응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전시회에는 서양화 2명, 한국화 2명, 일러스트 1명, 설치미술 1명, 조소 1명 등 각 분야별 작가가 창작한 미술 작품 30여 점을 전시할 예정이다.

밴드 <한나>의 식전공연과 더불어 개막식 후에는 전시회에 출품한 작가가 직접 관람객에게 자신의 작품에 대해 해설하며, 관람객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권선옥 문화원장은 "젊은 예술가들이 전시회를 통해 자신감을 얻고 작품 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 정

하반기 시민과의 대화 실시

김정섭 공주시장=4일 오전 9시 30분 정안면, 오후 4시 30분 신풍면을 방문해 하반기 시민과의 대화를 실시한다.

목요간부회의

김동일 보령시장=4일 오전 8시 20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목요간부회의, 오전 10시 대천동대초등학교 한울관에서 열리는 대천동대초등학교인구정책 간담회 참석.

새마을운동 미소 · 친절 · 청결 전진대회

보령시는 3일 오전 보령종합체육관에서 각급 기관 · 단체장과 새마을지도자,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마을운동 미소 · 친절 · 청결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새마을운동보령시지회(회장 양완수)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결속과 지역사회 봉사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바로 잡고, 미소와 친절로 웃음이 끊이질 않고 청결 운동을 통해 깨끗한 도시로 나아가자는 시민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전행사로 미소 · 친절 · 청결 새마을지도자 마인드 교육을 시작으로 1부 의식행사는 유공자 표창과 실천 다짐 결의대회, 2부는 축하 공연과 새마을단체 회원 간 한마음행사, 환경 정화활동으로 진행됐다.

유공자로는 조봉연 씨 등 2명이 국회의원, 오락교 씨 등 2명이 시의장, 김상돈 씨 등 2명이 중앙회장, 웅천읍 대창1리 김도희 씨 등 16명과 새마을문고 및 청년봉사대 등 2개 기관이 시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김동일 시장은 "지난 2015년부터 역점으로 추진해 온 미소 · 친절 · 청결운동은 차별화된 시민운동으로 자리매김하여 깨끗한 도시와 살기 좋은 만세보령 건설에 기여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친절한 시민상 정립과 밝고 긍정적인 지역사회 조성, 그리고 관광 보령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령=김태선기자

새로운 시책 및 달라지는 제도 시행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올 하반기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이용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새로운 시책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조중범 기획담당관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충남도와 연계해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시내버스 이용 요금 무료화를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며 무료 교통카드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신규 고용하는 관내 중소기업에 1인당 최저임금의 30% 지원하는 어르신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도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8월에는 충남도내 최초로 공주사랑 전자상품권 '공주페이'가 발행되고,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열혈청년 패키지 지원 사업은 9월부터 실시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는 카카오톡, 네이버 앱 등을 통한 고지서 수신 및 납부가 가능하고,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학교로 찾아가는 서비스는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8월부터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일상 사고를 대비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가 농기계 사고까지 확대된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제도를 살펴보면, 장애등급제가 1일부터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하게 개편됐으며, 9월부터 아동수당 대상연령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미만으로 상향된다.

또한,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소득기준삭제, 큰아이 돌봄비용 지원) △야구장업 및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이 금연구역 지정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주=정상범 기자

맹정호 시장, 민선7기 1주년 맞아 언론인 간담회 통해 그동안 성과 · 향후 정책 방향 밝혀

"시민 중심의 변화 자리매김"

맹정호 서산시장은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갖고 지난 1년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밝혔다.

'시민 중심의 시정 패러다임 변화', 가장 큰 성과

맹 시장이 꼽은 가장 큰 성과는 '시민 중심의 시정 패러다임 변화'이다.

그는 "소통과 협업을 기반으로 3대 혁신(자치 · 행정 · 시장)을 통해 행정 중심의 시정을 시민 중심으로 바꿔 나가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1년간 공약 배심원제 운영, 주민참여예산 확대, 각종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시정에 시민 의견을 반영했다.

또한 온통서산(SNS 민원창구) 개설, 도시형 버스노선도 설치, 무료 와이파이 확대 구축, 시내버스 무료 환승 시간 연장 등 시민 중심의 편의 시책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자원회수시설 설치, 터미널 이전 및 수석지구도시개발 사업 등 오랜 지역 현안의 매듭을 민주적 공론화 절차를 통해 풀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장기적으로 시정 발전을 이끌 전략 추진

미래 시정 발전을 이끌어 갈 시책들도 성과를 내고 있다.

서해안 내포철도 건설을 위해 예산, 태안과 공동협력 MOU를 체결했고 도심 외곽 순환로인 동서간선도로도 개통을 앞두고 있다.

첨단정밀화학 특화산업단지 SPC 설립을 추진하고 지곡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SK건설과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발전 소외지역 지원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지원사업도 조례 제정 등 준비를 마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개소했다.

농민 주도의 농정 추진을 위해 농업 · 농촌 혁신발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농식품부 푸드플랜 구축 사업 선정으로 지역 먹거리 선순환을 위한 종합 전략이 수립 중에 있다.

고용 · 안전 · 문화 · 복지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성과도 눈에 띈다.

지역 특색에 맞는 민선7기 일자리 계획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청년 고용률이 전년 대비 11.3% 증가하는 등 고용률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경로당 · 학교 · 어린이집 · 장애인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 △시민 안심귀가 모바일 서비스 운영 △닥터헬기 전용 이착륙장 설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등을 추진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및 공동육아 나눔터 확충 △유아숲체험원 개장 △청소년 전용카페 개소 △3대 무상교육 시행 △진로진학상담센터 개소 등 아이 키우기 좋은 기반을 조성했다.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 · 체육 인프라 조성을 위해 △시승격 30주년 기념 열린 음악회 △찾아가는 청년 문화 · 예술 활동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인문학 중심의 시민대학 운영 등을 추진했다.

민선7기 공약 순항, 87개 공약 중 20.7%인 18개 공약 완료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총 87건의 공약 중 18건이 완료됐으며 67건의 공약도 연차별 계획에 맞춰 정상 추진 중이다.

지난 4월에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시민배심원제를 통한 공약 확정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높이 평가받아 최우수 등급을 받기도 했다.

성장 동력 발굴, 성숙한 시민사회 조성, 삶의 질 향상 인프라 구축 등 향후 30년을 위한 초석 쌓기에 집중

맹 시장은 "올해는 시 승격 30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며 "지속가능 성장 동력 발굴, 대화와 타협의 성숙한 시민사회 조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해 향후 30년을 위한 초석을 쌓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한 주요 현안 사업으로 △ 국가해양정원 조성 및 부남호 역간척 △ 생애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서해안 내포철도 및 대산항 인입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첨단정밀화학 특화산업단지 △지곡일반산업단지 민관합동 개발 △기업과 지역사회 동반성장 가시화 △지역균형발전 지원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 추진 등을 꼽았다.

맹 시장은 "지난 1년은 더 큰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묵은 현안을 풀어낸 기간이었다."며 "앞으로는 호시우행이 아닌 호시마행으로, 보다 속도감 있게 시정을 추진하여 시민들께서 피부로 성과를 느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한기자

부춘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인기

서산시 부춘동 주민자치센터가 지난 4월 1일 서산농협 하나로마트 서부지점 2층에 개소한 이후로 자기계발과 여가 생활을 즐기려는 주민들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성황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2분기에 운영해오던 8개의 프로그램(통기타, 요가, 색소폰, 웰빙댄스, 노래교실, 오카리나, 댄스스포츠, 치매댄스)을 주민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3분기에는 2개의 프로그램(줌바댄스, 하모니카)을 추가 편성했으며 278명의 수강생들이 접수했다.

또한 더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26평의 공간을 추가로 확보해 강의실을 확장하고, 주민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재능기부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동아리방을 신설했다.

김영중 부춘동장은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부춘동 주민자치센터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며 "동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한기자

보령시 폭염 대응 안전대책 행정력 집중

취약계층 특별보호 및 쿨링포그 등 폭염 저감시설 확대 설치

보령시는 때 이른 무더위와 지속되는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인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폭염 대응 안전대책 추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6~8월 여름철 평균 기온은 1910년 22.5℃에서 지난해 25.4℃로 100년 만에 2.9℃ 상승하는 등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지난 1973년부터 2018년까지 46년간의 평균 폭염일수는 10.9일에서 최근 9년간은 15.6일로 폭염일수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폭염 대비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상황관리, 건강관리지원 TF팀 운영,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 특별보호 관리 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쿨링포그 및 그늘막 사업 등 폭염 저감 시설을 확대 설치키로 했다.

시는 먼저 폭염주의보부터 극염까지의 단계별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상황관리반과 건강관리지원반으로 나눠 폭염합동 T/F팀을 운영하고, 폭염 취약계층 맞춤형 집중관리를 위해 ▲건강보건전문인력, 노인돌보미 등 재난도우미 1,021명 운영 ▲독거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 집중 관리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예방조치의무로 취약사업장 지도 등 근로자 건강관리 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무더위쉼터 377개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냉방기 고장, 운영시간 미 준수, 야간 · 휴일 개방 저조 등 무더위쉼터 불편사항 신고제도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마을회관, 경로당 등 무더위쉼터 8개소 옥상에 고반사 도료를 시공하여 온도를 낮추는 쿨루프를 시공하고, 대천1지구우수저류시설 내 공원에 쿨링포그(안개분무)시스템을 설치하여 미세먼지 및 온도를 저감시켜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11개소에 그늘막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나, 앞으로 8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시내 이용률이 높은 버스승강장 13개소에 16대의 선풍기도 설치했다.

아울러 고온으로 인한 농 · 어업 피해 예방을 위해 재해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현장기술지원단 · 수산사무소 등을 통해 농축산 · 어업인 대상 폭염 현장기술지원단 등을 운영하며, 가축 폐사 예방을 위한 축사 시설개선도 지원한다.

김동일 시장은 "지난해 유난히 길었던 폭염으로 우리 시에도 4명의 열사병 온열환자가 발생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시민들이 무더운 여름철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령=김정미 기자

우/리/동/네

진악산 · 금성산 등반 안전성 확보

금산군, 친환경 야자매트 설치 건강걷기 최적화

금산군은 등산객들에게 보다 편안한 산행문화를 만들기 제공하기 위해 금성산 및 진악산에 대한 등산로 정비에 나섰다.

기존에 설치된 목계단 및 조망안내판 보수, 경사지에 부정형 돌계단 및 돌횡배수대, 야자매트가 설치 중이다.

특히, 걷기운동의 최적지로 꼽히는 금성산 술래길은 친환경 자재인 야자매트로 안전성을 확보했다.

야자매트는 코코넛 열매에서 추출한 천연 섬유를 직조해 만든 소재로 우수한 배수성으로 걷기편한 길 조성에 적합하다. 토사 유실과 침식 방지, 빗물에 의한 세굴 방지에 효과가 있으며, 등산로 주변 답압현상으로 인한 나무뿌리도 보호할 수 있다.

내구연한이 지나면 자연 부식되어 유기질 비료로 환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산을 찾는 등산객들을 위해 편안하고 안전한 산행을 위해 등산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금산=주연기기자

여름 물놀이장 개장 준비 완료

곰나루 어린이수영장 6일 · 사계절 썰매장 13일 개장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공주시 물놀이장이 개장 준비 작업을 마치고 이번 주말부터 물놀이객들을 맞이한다.

해를 거듭할수록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곰나루 어린이수영장'물놀이장이 오는 6일 개장해 8월 18일까지 44일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에 들어간다.

수영장 200명, 물놀이장 250명 등 동시 수용 가능인원이 450명으로, 수영장은 5세에서 13세 어린이까지 물놀이장은 13세 이하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수영장은 수영복과 수영모를 착용해야 입장 가능하고, 입장료는 올해도 무료로 운영된다.

시는 수상안전요원 10명과 보건요원 1명, 주차요원 2명을 상시 배치해 안전사고 예방과 수영장 내 질서 유지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15일에 1회씩 전문 업체에 수질검사를 의뢰해 그 결과를 게시하고, 여과기 가동과 수중로봇 활용 청소, 이용객 규모 및 수질상태를 고려해 주 2회 물갈이 등으로 수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공주산림휴양마을에 들어선 사계절 썰매장'물놀이장은 오는 13일 개장해 8월 30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2회로 나누어 운영된다.

사계절썰매장 이용요금은 만 16세 이상은 5천원, 만 15세 이하는 3천원이며, 물놀이장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안전을 위해 7세 미만 어린이 및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사계절 썰매장 이용이 제한되고, 매주 월요일과 우천 시에는 휴장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이용객 편의를 위한 휴게쉼터와 폭염에 대비한 차광막을 설치했고, 지난해 이용객들의 요구가 많았던 푸드트럭 3대를 매표소 인접 이벤트 광장에 배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금학 제2수원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업비 4억 200만 원을 긴급 투입해 제방 보수 · 보강공사를 올 4월까지 완료하고, 4억 2200만 원을 추가 투입해 여수로 및 부대시설 보수 · 보강공사를 6월에 준공해 금학수원지의 안전성을 회복해 시민과 관광객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주력했다.

박지규 휴양사업소장은 "사계절썰매장과 물놀이장의 운영으로 여름방학을 맞이한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청정 자연 속에서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며, "시민과 관광객들이 최상의 휴식과 체험,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여가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 기자

TV 오늘의 하이라이트

▲ 여름아 부탁해 (KBS1 오후 8시25분)

금희(이영은 분)는 자립하기 위해 일자리를 알아본다. 용진(강석우 분)은 준호(김사권 분)에게 병원에 다시 나오라 한다.

한편 대성(김기리 분)은 준호가 금희와 함께 외식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수상한 장모 (SBS 오전 8시30분)

김혜선, 포기 않는 박진우에 설득 당할까?!

빈 사무실에서 울리는 은석의 핸드폰. 은지는 은석의 핸드폰을 보고 제니의 행방을 알게 되고 곧바로 애리에게 보고한다. 애리를 통해 제니의 행방을 알게 된 수진은 제니를 찾아 나서고 시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제니와 마주치게 되는데…

▲ 절대그이 (SBS 오후 10시00분)

"로봇이야…" 방민아, 모두에게 밝히는 진실

오작동으로 갑자기 멈춰버린 영구는 자신의 정체를 리얼팀 팀원들과 여웅에게 들키고 만다. 다다는 영구와의 만남을 결사반대하는 왕준과 규리로 인해 마음이 심란하고... 한편 다다와 영구, 리얼팀은 지방촬영이 끝나고 왕준, 여웅과 함께 펜션에 머물며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낸다. 그러다 왕준은 영구 곁에서 환하게 웃는 다다를 보게 되는데...

케이블 명화

▲ 아이언맨 (OCN 오후 7시30분)

천재적인 두뇌와 재능으로 세계 최강의 무기업체를 이끄는 CEO이자, 타고난 매력으로 셀러브리티 못지않은 화려한 삶을 살아가던 억만장자 토니 스타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자신이 개발한 신무기 발표를 성공리에 마치고 돌아가던 그는 게릴라군의 갑작스런 공격에 의해 가슴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게릴라군에게 납치된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그에게 게릴라군은 자신들을 위한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라며 그를 위협한다. 그러나 그는 게릴라군을 위한 무기 대신, 탈출을 위한 무기가 장착된 철갑 수트를 몰래 만드는 데 성공하고, 그의 첫 수트인 'Mark1'를 입고 탈출에 성공한다.

미국으로 돌아온 토니 스타크는 자신이 만든 무기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세상을 엄청난 위험에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기사업에서 손 뗄 것을 선언한다. 그리고, Mark1을 토대로 최강의 하이테크 수트를 개발하는 데 자신의 천재적인 재능과 노력을 쏟아 붓기 시작한다. 탈출하는 당시 부서져버린 Mark1를 바탕으로 보다 업그레이드 된 수트 Mark2를 만들어낸 토니 스타크.

▲ 파파로티 (채널CGV 오후10시30분)

성악천재 건달, 큰 형님보다 무서운 적수를 만나다

한 때 잘 나가던 성악가였지만 지금은 촌구석 예고의 음악 선생인 상진(한석규). 싸늘한 교육열, 까칠함만 충만한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미션이 떨어진다. 천부적 노래 실력을 지녔으나, 일찍이 주먹세계에 입문한 건달 장호(이제훈)를 가르쳐 콩쿨에서 입상 하라는 것. 전학 첫날 검은 승용차에 어깨들까지 대동하고 나타난 것도 모자라, 수업 중에도 '큰 형님'의 전화는 챙겨 받는 무늬만 학생인 장호가 못마땅한 상진. 장호의 노래를 들어볼 필요도 없이 결론을 내린다.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 아냐?!"

주먹과 노래 두 가지 재능을 타고났으나 막막한 가정 환경으로 인해 주먹 세계에 뛰어든 장호. 비록 현실은 '파바로티'의 이름 하나 제대로 모르는 건달이지만 성악가가 되고픈 꿈만은 잊은 적 없다. 이런 자신을 가르쳐 주긴커녕 툭하면 개나 소나 취미로 하는 게 클래식이냐며 사사건건 무시하는 쌤 상진의 태도에 발끈하는 장호. 그래도 꿈을 포기할 수 없는 장호는 험난하고 까칠한 상진과의 관계를 이어가는데... "쌤요 내 똥 아입니더!"

케이블 & 위성방송

▶YTN (02)398-8000 ▶스카이라이프 1588-3200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060-398-3355

영화 · 오락

◈ OCN
6:20 일급기밀
8:10 흥부글로세상을바꾼자
10:00 나이트크롤러
12:20 스파이더맨3
15:00 보이스3
17:20 지오스톰
19:30 아이언맨
22:00 물괴

◈ 채널 CGV
5:30 빅게임
7:00 순정(2015)
9:10 구해줘2
10:30 레옹
13:00 에이리언: 커버넌트
15:20 탐정: 더비기닝
17:40 탐정: 리턴즈
20:00 쥬라기월드
22:30 파파로티

◈ Mnet
7:30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5
9:00 고등래퍼2
10:30 썸바디 스페셜
12:00 니가 알던 내가아냐
13:30 MPD Music Talk(SNS/메신저)
14:30 인싸채널 체리블렛
15:30 썸바디
17:10 Daily Music Talk(SMS)
18:00 MCOUNTDOWN
19:30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4
21:00 Live on M (SMS
22:00 인싸채널 체리블렛
23:00 니가 알던 내가아냐

스포츠 · 레저

◈ MBC스포츠플러스
11:00 2014 소치동계올림픽 대한민국 하이라이트
12:00 2018 NFL 플레이오프 진출팀 하이라이트
12:30 2018 KBO리그 TOP10
14:30 2018 평창동계올림픽 컬링 여자 하이라이트
15:30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특집 꿈이 이루어지다

◈ SBS 스포츠
9:00 18-19 쇼트트랙 월드컵 1차 대한민국 하이라이트
11:00 18-19 V리그 여자부
13:00 2018 LG U+컵 3쿠션 마스터스
16:00 18-19 V리그 여자부
18:00 주간배구 다이제스트
18:50 18-19 V리그 남자부
21:00 2016 LG U+컵 3쿠션 마스터스

◈ 온스타일
7:40 겟잇뷰티 2018
9:40 원나잇 푸드트립 스페셜
10:50 밥블레스유
11:50 밥블레스유
12:50 원나잇 푸드트립 스페셜
14:30 겟잇뷰티 2018
15:40 겟잇뷰티 2018
16:50 밥블레스유
17:50 원나잇 푸드트립 스페셜
19:30 원나잇 푸드트립 스페셜
21:20 겟잇뷰티 2018
22:30 밥블레스유
23:20 대탈출

뉴스 · 다큐

◈ YTN
8:00 뉴스특보
10:00 뉴스특보
12:00 뉴스N이슈
14:00 호준석의 뉴스인
16:00 뉴스Q
18:00 뉴스통
19:30 신율의 시사탕탕
20:15 YTN 24
21:00 YTN 국민신문고

◈ 한국경제TV
6:00 굿모닝 투자의아침
8:30 출발! 증시830
10:00 증시라인 10
12:00 재테크, 알아야번다
13:00 증시라인 13
15:40 부자국민 만들기 연금술사
16:30 한국경제 이슈N
17:00 성공예감 부동산재테크
18:00 생방송 부동산 현장
19:00 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00 장외주식 사구팔구
21:00 대박 천국

◈ 내셔널지오그래픽채널
10:00 건강한 아침, 메디컬365
11:00 TV 동물농장
12:15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13:15 <인생은 야생이다> 이집트, 모래 위의 낙원
14:15 <인생은 야생이다> 와일드 알래스카 큰 곰의 세계
15:15 <인생은 야생이다> 익스트림 애니멀 베이비 - 4부
16:15 이주의 법칙
16:45 TV 동물농장
19:00 아시아헌터
20:0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음악 · 애니

◈ MBC 뮤직
9:00 피크닉 라이브 소풍
10:00 MBC MUSIC HIT SONGS
11:00 주간 아이돌
12:00 Show Champion
13:30 대한외국인
15:10 언더나인틴
16:30 나혼자 산다
18:10 복면가왕

◈ 애니맥스
7:00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 브레이브
8:00 터닝메카드W 시즌2
9:00 꼬마버스 타요4
10: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2
11:00 레인보우 루비
12:00 몬스터 vs 에일리언
13:00 마음의 소리
14:00 안녕! 괴발개발
15:00 아울은 너무 이상해
16:00 타오르지마 버스터
17:00 포켓몬스터 썬&문
18:00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 JEI 재능방송
6:00 유희왕
7:00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 브레이브
8:00 파워캐치 윈다 part2
9:00 퍼피구조대 시즌2
10:00 변신자동차 또봇 12기
11:00 출동! 슈퍼윙스
12:00 세서미 스트리트 - 엘모더뮤지컬
13:00 치링치링 시크릿 쥬쥬 11기
14:00 포켓몬스터 XY
15:00 12 영웅전사
16:00 놓지마 정신줄
17:00 애슬론 또봇

TV 프로그램

※ 문의 ▶ KBS 470-7320 ▶ MBC 220-2348~9 ▶ TJB 281-1101 ▶ SBS (02) 369-1090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9 6 3	TJB/SBS	CMB	EBS
6:00 KBS 뉴스광장	6: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6:00 MBC 뉴스투데이	6	6:00 모닝와이드	6:00 충청남도 영상소식 6:20 최자영 시인 내안에 그대 6:30 은혜로운 말씀	6:10 세계의 눈 7:00 지파이터스 7:30 꼬마버스 타요 7:45 뽀롱뽀롱 뽀로로
7:50 인간극장	7: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7:50 용왕님 보우하사	7	7:40 모닝와이드	7:30 시청자 뉴스	8:00 딩동댕 유치원 8:15 그림을 그려요
8:25 아침마당	8:00 KBS 아침뉴스타임	8:30 생방송 오늘 아침	8	8:40 수상한 장모	8:00 뉴스와이드 8:50 과학 톡톡 신나는 과학세상	8:45 방귀대장 뿡뿡이 9:00 곰디와 친구들
9:30 KBS 뉴스	9:00 여름아 부탁해 9:40 그녀들의 여유만만	9:30 930 MBC 뉴스 9:55 중계방송 교섭단체 대표연설	9	9:10 좋은 아침 9:55 중계방송 교섭단체 대표연설	9:00 CMB 집중토론	9:40 달리졌어요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0:00 중계방송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 -자유한국당 10:4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40 지구촌 뉴스	10:45 기분 좋은 날	10	10:40 SBS 뉴스	10:30 문학의 향기	11:00 세계 테마여행 11:40 한국기행
11:40 팔도밥상 스페셜	11:00 단, 하나의 사랑	11:45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스페셜	11	11:00 열린 TV 시청자세상	11:00 파인드 맛집	12:00 EBS 정오뉴스 12:10 통일의 길
12:00 KBS 뉴스12	12:10 태양의 계절	12:00 12 MBC 뉴스 12:25 장애인식개선 프로젝트 우리동네 피터팬	12	12:00 SBS 12 뉴스 12:50 집사부 일체	12:00 CMB 뉴스 12:50 시청자뉴스	12:40 역사채널 12:45 연중기획-미래를 여는 교육
1:00 사랑의 가족 1:50 꼬마어사 쿵도령	1:10 생생정보 스페셜	1:25 꾸러기 식사교실 1:55 2시 뉴스 외전	1		1:20 과학 톡톡 신나는 과학세상 1:30 메디컬 인	13:40 오마이 미래 2035 13:50 이얍! 스페이스정글
2:20 시노스톤 2:30 세계는 지금 스페셜	2:00 KBS 뉴스타임 2:10 세상의 모든다큐		2	2:00 뉴스브리핑	2:00 남진아의 청춘을 돌려다오	14:00 코코몽2 14: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3:00 TV쇼 진품명품	3:00 자동공부책상 위키2 3:30 TV 유치원	3:25 BBB 삼총사의 모험 3:55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스페셜	3			15:00 모피와 친구들 15:10 세계사 시간여행
4:00 사사건건	4:00 누가누가 잘하나	4:55 이몽	4	4:00 본격 연예 한밤	3:00 CMB뉴스 3:50 충청남도 영상소식	15:30 꼬마철학자 휴고 16:00 곰디와 친구들
5:00 KBS 뉴스 5 5:30 동물의 왕국	5:00 또봇V 5:15 핑크퐁 원더스타 5:30 주간연예 수첩	5:55 생방송 오늘 저녁	5	5:00 SBS 오뉴스	4:00 김정선의 날마다 좋은날	16:30 방귀대장 뿡뿡이 16:45 딩동댕 유치원
6:00 6시 내고향			6	6:00 정글의 법칙	5:00 염홍철의 사람과 세상	17:00 그림을 그려요 17:15 두다다쿵
7:00 KBS 뉴스7 7:40 한국인의 밥상	6:00 KBS 경제타임 6:30 2TV 생생정보	6:50 용왕님 보우하사	7	7:00 생방송 투데이	6:00 뉴스와이드 6:50 시청자뉴스	17:25 딩동댕 유치원 17:45 뽀롱뽀롱 뽀로로
8:30 여름아 부탁해	7:50 태양의 계절	7:30 MBC 뉴스데스크	8	7:55 SBS 8 뉴스	7:30 문학의 향기	18:00 톡! 톡! 보니 하니 1
9:00 KBS 뉴스9	8:30 글로벌 24 8:55 제보자들	8:55 봄 밤	9	8:55 순간포착 세상에이런일이	8:00 충남도 행복톡	18:05 쓰담쓰담 동물원프렌쥬 18:20 톡! 톡! 보니 하니 2
10:00 KBS 스페셜 10:55 오늘밤 김제동	10:00 단, 하나의 사랑	10:00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10	10:00 절대 그이	9:00 뉴스와이드 9:50 과학 톡톡 신나는 과학세상 10:00 CMB 집중토론	18:25 야옹멍멍 귀여워 18:40 톡! 톡! 보니 하니 3 18:45 스쿨랜드-한자왕국
11:30 UHD 숨터 11:4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11:10 해피투게더	11:10 섹션 TV 연예통신	11	11:10 접속! 무비월드	11:30 메디컬 인	18:55 톡! 톡! 보니 하니 4 19:00 레전드 히어로-삼국전 19:30 EBS 뉴스 19:50 건강프로젝트-바꾸면 산다 20:40 다큐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한국 테니스 간판 권순우 상승세 매섭다

8월 US오픈서 메이저대회 본선 첫 승 재도전

한국 테니스 유망주에서 간판으로 떠오른 권순우(22세, 당진시청)가 올해 출전한 대회에서 선전을 거듭하며 매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권순우(125위)는 1일 영국 윔블던에서 열린 윔블던 테니스대회 남자 단식 1회전에서 세계 랭킹 9위의 강호 카렌 하차노프(러시아)를 상대로 분전 끝에 세트 스코어 3대 1로 아쉽게 패했다.

한국 선수로는 2007년 이형택(43세, 은퇴) 이후 12년 만에 윔블던 본선 승리에 도전한 권순우는 첫 세트부터 타이브레이크 승부를 펼쳤다. 3세트에서는 승리를 따내는 등 3시간 7분의 경기 내내 강호 카렌 하차노프와 접전을 벌였다.

이번 대회에 앞서 권순우는 지난 3월 요코하마 케이오 챌린저 대회에서 오스카 오테(독일)를 꺾고 정상에 올랐으며, 이후 5월에 다시 서울오픈 챌린저 남자 단식 결승에서도 맥스 파셀(호주)를 격파하고 우승을 차지하는 등 선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올해 권순우의 상승세는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을 뛰어넘는다. 현재 그의 세계랭킹은 125위로 커리어 하이를 연일 갱신 중이다. 2016년 1월 645위였던 순위가 3년여 만에 무려 520계단이나 껑충 뛰어올랐다.

권순우의 상승세는 지난해 4월 고등학교 스승인 최근철 감독이 지휘하고 있는 당진시청에 입단한 이후 올해 후원사까지 생기면서 더욱 안정적으로 대회에만 임할 수 있게 됐다.

권순우의 다음 대회는 오는 8월 26일 개막하는 4대 메이저 대회인 US오픈이다. 윔블던에서의 선전이 메이저대회 본선 첫 승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당진=최근수기자

아산시, 한눈에 보는 '평생학습 정보망' 본격 가동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정보 한눈에 확인

아산시평생학습관은 7월 5일부터 관내 평생학습기관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평생학습 정보망'을 본격 가동한다.

평생학습 정보망은 아산시의 다양한 평생학습 정보를 한 곳에 모아 통합안내 서비스로 시는 시민들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 시민 학습권 보장,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650만원을 투입해 평생학습 정보망을 구축하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7월에 선보이게 됐다.

시는 관내 30여개 평생학습 기관과 17개 읍 · 면 · 동 주민자치센터의 740여개 강좌 정보 등을 매월 아산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http://life.asan.go.kr)를 통해 제공하고, 시민들은 현재 운영 중인 평생학습 강좌를 강좌별, 지역별로 검색해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시는 평생학습기관과 프로그램의 운영현황 분석으로 아산시의 현실에 맞는 맞춤형 평생학습 정책과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고품질 평생학습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윤연옥 아산시평생학습관장은 "평생교육 정보망은 교육기관과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정보를 함께 공유해 시민들의 교육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접속만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시민이 중심이 될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공주정명학교 "정명 워터파크에서 신나게 즐겨요"

학생성장 맞춤 긍정적 행동지원을 위한 물놀이 개최

공주정명학교(교장 백옥희)는 지난 3일 본교 운동장에서 학교 내 긍정적 분위기와 학생들의 여가 문화 체험, '학생성장 맞춤 긍정적 행동지원'의 일환으로 정명 워터파크를 개장하고 물놀이 및 수영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물놀이 및 수영 체험 활동에 참여한 본교 초 · 중 · 고 학생들은 워터파크에서나 볼 수 있는 큰 슬라이드와 수영장을 보고 매우 기뻐하며 신나게 물놀이 체험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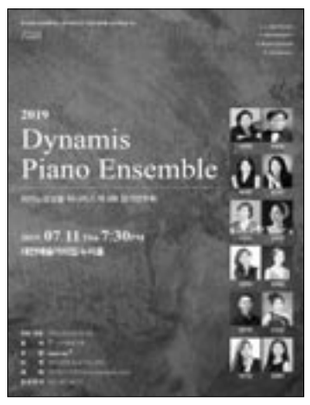
본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문정환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워터파크에 온 것 같다."며 "수영과 물놀이를 즐기니 너무 신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공주정명학교에서는 긍정적 행동지원으로 지역 사회 전문가를 초빙해 '긍정적 행동지원팀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스스로 인사해요! 캠페인', '이달의 정명인' 선정 등 학생들의 긍정적 행동지원을 위해 힘써 왔다.

이런 일련의 활동과 연계해 '정명 워터파크 개장'을 실시하게 된 것이며, 학생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학교 안에서의 물놀이 체험은 평소 외부체험기관에서 느껴 보지 못한 체험으로 학생들 개개인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기회로 긍정적 행동의 유도가 가능할 것이라 여겨진다.

공주=정상범기자

피아노앙상블 뒤나미스 <제 4회 정기연주회> 개최



오는 11일 오후 7시30분 대전예술가의집 누리홀에서 피아노앙상블 뒤나미스<제 4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가능성, 잠재력' 등의 뜻을 지닌 피아노 앙상블 뒤나미스(Dynamic)는 대전을 대표하는 연주자로 자리매김 한 중견 피아니스트 송희영 교수를 주축으로 그녀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만든 단체이다.

2016년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정통 클래식 공연에 열중하면서도 클래식 음악회는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무대와 관객 사이의 벽을 무너뜨리고 클래식이 가진 힘, 그중에서도 피아노가 가진 힘으로 관객들에게 감동이 있는 연주활동을 하고 있다.

2019년 <제 4회 정기연주회>로 개최하는 이번 공연은 베토벤, 멘델스존, 슈만, 라흐마니노프 등 고전주의부터 후기낭만주의 작곡가들의 교향곡, 실내악곡 등 다양한 악기편성 음악들을 피아노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오케스트라적 대담한 울림과 실내악의 울림 그리고 피아노 듀오의 서정적인 울림을 들려줄 피아노 앙상블 뒤나미스의 이번 공연의 음색은 7월 무더위 속에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시원한 청량감을 선사한다.

이번 공연은 8세 이상 관람가능하며, 전석 1만원으로 인터파크 티켓에서 구입할 수 있다

<문의_ 나무예술기획 042-477-8220>

송병배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EN.F Total Interior Design 연.에프 대표 손혁건 Mobile 010-8422-6946 주방가구 · 붙박이장 공장 · 전시장

대전대 LINC+사업단, 도시재생뉴딜사업 대동현장지원세터와 MOU 체결 대전대학교(총장 이종서)LINC+사업단(단장 이영환 교수)이 3일 대학 산학협력관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 대동현장지원센터(센터장 전영훈)와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예산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행복주택건설사업 실무 협약 체결 예산군은 3일 군청 상황실에서 황선봉 군수, 최회묵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구)군청사 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지역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실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천안시 취약계층 어르신 위한 보행보조차 88대 전달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회장 유창기)는 지난 2일 천안적십자 봉사관에서 지역 노인 88명에게 보행보조차를 전달하고 사용 방법 안내를 실시했다.

한밭대 최병욱 총장 하계현장실습기간 지역중소기업체 방문 한밭대 최병욱 총장이 지난 2일 ㈜삼진정밀(대표 정태희)을 방문하여 산학협력 교육과정 내실화방법과 산업현장의 애로상황 등 대학과 지역 산업체의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선문대 · 대만 명전대 · 성요한대, 글로벌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선문대학교(총장 황선조)가 3일 대만의 명전대학교, 성요한대학교와 함께 '글로벌 캡스톤디자인 C3 School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선문대 26명, 명전대 16명, 성요한대 10명 총 52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건양대 산학협력단 '세종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통합설명회 개최 건양대학교(총장 이원묵) 산학협력단(단장 홍영기)은 2일 오후 2시 세종시청 조치원청사에 있는 세종SB프라자에서 지역기업 대표 및 유관기관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세종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했다.

한남대 김건하 교수팀, 친환경 복원 기술 개발 성공 '주목'

가축 매몰지 친환경 복원 기술개발

한남대학교 김건하 교수(토목환경공학 전공)팀이 가축 매몰지를 친환경적으로 복원하는 기술개발에 성공했다.

매년 발생하는 가축질병(구제역, 조류독감, 돼지콜레라 등)에 의한 가축사체 처리가 매몰 방식이었고 이에 따른 환경문제에 직면해 있었던 만큼 이번 친환경 복원 기술이 주목 받고 있다.

3일 김 교수팀(가축매몰지환경관리연구단 단장)에 따르면 수원대 이채영 교수연구팀, 연세대 박준홍 교수 연구팀, ㈜다산컨설턴트와 공동으로 가축 매몰지를 안전하게 제거해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했으며 환경신기술 인증(기술명 : 생분해 촉진제와 수평형 회전 교반기를 이용한 이설된 가축사체 안정화 기술)을 마쳤다.

지난 2010년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했고 가축매몰지가 전국적으로 4500여개 조성됐다. 그 이후 조류독감 등 매년 발생하는 가축질병으로 매몰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친환경매몰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나, 이미 존재하는 매몰지를 가축방역법과 환경법규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제거하기 위한 기술은 없었다.

김 교수팀이 개발한 기술은 가축 매몰지 복원시 매몰지마다 특성에 맞춰 특수미생물과 생분해 촉진제를 투입해 부패속도를 향상시키는 친환경적인 복합공정이다.

김건하 교수 연구팀은 대규모 테스트베드를 조성해 수차례 친환경 가축 매몰지 복원을 성공시켜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김 교수는 "축산농가의 생활환경 개선과 국내 축산업의 보호, 국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가축 매몰지를 안전하게 복원시키는 적극적인 환경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친환경 가축매몰지 제거 기술은 유력학술지인 '공정안전 및 환경보호(Process Safe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을 비롯해 10개 국외 학술지에 게재됐으며, 10개의 국내특허를 등록했다.

김정환기자

청양군 청남면 지곡리 주민들 '환경정비의 날' 운영

청양군 청남면 지곡리 주민 20여명은 지난 2일 환경정비의 날을 운영하면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주민들은 마을 입구 화분, 도로변 화단, 가로화단, 마을 쉼터 화단 등 4곳의 잡초를 말끔하게 제거했다.

환경정비의 날은 청남면의 중점 추진시책이며 분기별 · 마을별 · 사회단체별로 꽃길 가꾸기, 청소활동 등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윤상인 지곡리장은 "바쁘신 중에도 환경정비의 날 운영에 적극 동참해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마을 환경을 유지하도록 힘쓰자"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공주시 '정리수납전문가' 봉사활동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수료자 20여 명 봉사활동

공주시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인 '정리수납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20여 명은 지난 2일 의당면 유계리 마을회관을 찾아 정리수납 봉사활동을 펼쳤다.

시에 따르면, 이번 봉사활동은 '정리수납전문가'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습자들이 그 동안 배운 전문적 지식과 실력을 지역사회에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마을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마을회관과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댁을 찾아 청소와 정리정돈을 통해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새롭게 만들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학습자는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유용한 내용을 지역사회에 재능기부 할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중심의 다양한 학습자원 발굴과 학습과 나눔의 마을학습공동체 기반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하반기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은 오는 8월 모집할 예정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평생학습포털(http://www.gongju.go.kr/learning)을 참고하거나 공주시청 평생교육과(☎041-840-8391, 8383)로 문의하면 된다.

공주=정상범기자

NH농협은행 당진시지부, 7~8월 두 달간

'고객을 위한 무더위 쉼터' 운영

NH농협은행 당진시지부(지부장 박장순)가 고객을 위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

NH농협 당진시지부에 따르면 무더위 쉼터는 7~8월 두 달간 영업시간(오전 9시~ 오후 4시)에 운영되며, 영업점 객장의 휴식 공간에서 생수, 음료 등을 제공한다. 이 무더위 쉼터는 은행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쾌적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다.

박장순 지부장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NH농협 당진시지부를 방문해 무더위를 피하면서 편안히 쉬어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금강변 로하스 야외수영장에서 무더위 즐겨보세요"

대덕구 로하스 야외수영장 개장, 도심 속 최고의 여름 피서지

대덕구(구청장 박정현)는 올 여름 일찍 찾아온 무더위를 즐길 수 있게 해줄 금강변 로하스 야외수영장이 개장했다고 3일 밝혔다.

대덕구 석봉동 금강로하스공원(금강엑슬루타워 옆)내에 위치한 로하스 야외수영장은 시설보수 등 개장 준비를 마치고 지난 29일 문을 열었다. 오는 14일까지는 주말(토요일, 일요일)에만 운영하고, 여름방학 기간인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는 상시 개장(화요일 ~ 일요일)한다. 다만 월요일은 쉬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구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쾌적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개장을 앞두고 화장실 변기 교체, 수영장 벽면 보수 등 시설 정비를 마쳤고, 깨끗한 수질 유지를 위해 여과기 필터도 교체했다"고 말했다.

입장료는 성인 5,500원, 청소년 4,400원, 어린이 3,300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20개월 미만 유아의 입장료는 무료이다. 장애인 · 경로대상자 · 국가유공자에게는 입장료 5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증빙서류(신분증 · 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 국가유공자증명서 등)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김태선기자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협동조합

송악면에 취약계층 위한 성금 기탁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협동조합(대표 최돌에)는 송악면 행복키움추진단에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85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외암마을 저잣거리협동조합이 6월30일 저잣거리 무대에서 실시한 '마을의 편안함을 위한 대동굿' 행사에서 모금된 것이다.

외암마을저잣거리 상가 주민 및 관광객 등 300여명이 참여한 행사는 전통굿 시연을 통해 아산시의 번영과 화합을 기원하며 참여자의 자발적인 성금모금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마승만 송악면장은 "마을 주민과 관광객이 하나가 되는 전통굿으로 즐거운 축제와 더불어 송악면 복지발전을 위해 성금을 기탁해주신 저잣거리협동조합에 감사드린다. 지역복지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창운 단장은 "성금을 기탁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더 나은 복지지원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일본 RISTEX', 대전발달장애인훈련센터 방문 견학

사회문제해결 R&D 공동 연구 가능성 검토 우수과제 현장방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발달장애인훈련센터(센터장 한윤경)는 3일 오후 1시, 일본 사회기술연구개발기관(Research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for Society, 이하 RISTEX)의 아키라 모리타(森田 朗) 소장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관계자 총 11명을 대상으로 센터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견학은 지난 4월29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MOU를 체결하고 추진중에 있는 '발달장애인 가상 직업훈련 효과강화를 위한 장애특화 몰입 콘텐츠 기술개발' 사업 관련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일본 RISTEX에서 요청해 추진됐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기관인 일본 RISTEX는 대전발달장애인훈련센터 견학을 통해, '발달장애인 대상 가상 직업훈련 콘텐츠(VR) 기술 개발'이라는 사회문제해결형 우수과제 관련 현장을 직접 방문해 한 · 일 간 사회문제해결 R&D 공동연구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송병배기자

칼 럼

탓, 탓, 탓, 남의 탓만 하는 집권여당

황선만 논설위원

인간은 누구나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본능적으로 '남 탓'을 한다. 나도 골프를 칠 때 오비(OB)가 나면 골프채 탓을 하는 경우가 있다. 정신분석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이 잘못 했을 때 남의 탓을 하는 이유는 첫째, 어떻게든 원인을 만들어 내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다. 둘째, 책임을 남에게 돌려 자기 잘못을 덮고자 한다. 셋째, 직접 나서진 않고 상대방을 컨트롤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마지막으로 어떤 형태로든 감정을 분출하지 않으면 돌아버릴 것 같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남의 탓도 한 두 번이지 계속하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비웃는다. 요즘 집권여당을 보면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 같다. 정부 정책 실패는 직업 관료의 복지부동을 탓하고, 경제가 바닥인 것은 외부환경을 탓하고, 정치가 안 풀리는 것은 제1야당 탓을 하고 있다.

동물국회 · 막말국회가 된 정치는 촛불 민심을 거역한 자유한국당 탓, 역대 최악의 경제 성적표는 국제 환경 및 전임 보수 정부의 정책 탓, 이제 집권 2년이 됐는데 내세울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자 당 · 청의 고위 관계자들이 한목소리로 '공무원 탓'으로 돌리고 있다.

집권 초엔 전 정권 탓을 해도 이해가 됐지만 2년이 넘었는데도 반복하면 국민은 짜증이 난다. 전임 정부가 잘못하였기 때문에 현 정부에 표를 주어 정권을 교체래 주었는데, 전임 정부 탓만 한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하는가.

지난 10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방송사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모르고 나눈 대화를 보면 현 정권 핵심부의 인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문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김 정책실장은 "2주년이 아니라 마치 4주년 같다"며 '레임덕'을 자인하고, 이 원내대표는 공무원들의 군기를 잡겠다고 한다.

공무원의 복지부동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 정권에서 이런 일이 두드러지는 데는 잘못된 정책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나 최근 버스 파업 사태를 보면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과 주 52시간제 실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정권은 5년이지만 공직자들은 수십 년 근무하게 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식이면 정부의 경쟁력은 바닥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부여당부터 '내 탓'을 시인하며 책임을 자청해야 공직자들도 충성할 마음이 생길 것이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대변인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고용부진의 이유를 전임 정부에 돌린 것과 관련 "경제 엉망은 전 정부 탓, 규제 개혁 부진은 야당 탓, 아들 특혜 취업 비판은 적폐라고 몰아붙이니 이것이 집권 2년차 여당의 현주소"라고 밝혔다.

천주교에서 '내 탓이요' 운동을 한 적이 있다. 이제 정부 여당은 남의 탓, 탓, 탓, 남의 탓만 하지 말고, 모든 일은 집권 여당의 자기 책임을 인정하고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이념에 매몰되지 말고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정책을 펼치기를 바란다. 집권여당의 정책이 성공해야 국민행복지수도 높아지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대한다. 이 기대를 현실로 만들려면 남의 탓에서 내 탓으로 인정하는 것이 첫 걸음이다.

칼 럼

의료산업화가 탄생시킨 괴물 인보사

원용철 벧엘의집 담당목사

최근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던 인보사사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감춰진 채 2005년 줄기세포 논문을 위조한 황우석사태 정도로 마무리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래서 인보사사태가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바이오 생명학 분야가 생명 투기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먼저 밝혀둘 것은 나는 의학전문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법률전문가도 아니다. 다만 평범한 한 사람의 국민으로 얼마 전 보건의료단체에서 있었던 인보사 사태에 대한 세미나와 기사, 성명서 등을 참고하여 인보사사태에 얽힌 근본적인 문제와 대안에 대해 공론의 장이 열리기를 바라며 아주 초보적인 문제제기를 해 보고자 한다.

인보사 사태란? 코오롱생명과학이 1999년 관절염 치료물질인 티슈진(TISSUEGENE)을 개발했다고 하면서, 2016년 7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인보사 품목허가 신청하여, 2017년 7월 12일 식약처로부터 인보사 품목허가를 받아 무릎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를 판매하다가, 2019년 3월 22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에 인보사의 주성분 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변경되었음을 통보하고, 3월 31일 식약처가 아닌 코오롱생명과학 스스로 인보사 제조 및 판매를 중지한 다음, 5월 22일 식약처가 허가를 취소한 사건이다.

인보사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 이전에 3,800명이나 되는 피해자들은 안전한가? 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허가 당시 연골세포를 전제로 종양원성시험을 통해 종양 발생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했고, 제조과정에서 해당 세포에 방사선을 조사하고 44일내 사멸하는지 확인한 뒤 투여하도록 하였기에 안전하다고 한다. 또한 현재까지 약물에 따른 종양 발생 사례도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장세포인 HEK 293은 무한증식을 하는 종양세포로 비록 체내에서 대부분 사멸한다고는 하지만 만에 하나 살아남아 무한증식을 한다면 3,800명의 몸속에 700만원이나 주고 암세포를 주입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반드시 국가가 나서서 장기추적검사를 통해 피해자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인보사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를 산업 논리로 규제 완화가 키워온 생명 투기 사건의 전형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보사사태는 의료산업화(의료민영화)가 탄생시킨 괴물이라는 것이다. 인보사는 정부가 지난 2002년부터 2018년까지 17년 동안 R&D 사업으로 총 147억원을 지원한 사업이다. 2002년에는 보건복지부의 신약개발 지원사업(연구기간 5년, 지원액13억원), 2005년에는 바이오 산업화 방안 중 하나인 바이오스타 프로젝트사업(6년, 52억 1500만원)에 선정되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았다.

그 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인보사 R&D 사업에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아예 날개를 달아줬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자가세포 치료제의 임상시험 기준을 완화하여 자가세포 치료제의 연구자 임상시험이 상업화 연계가 용이하도록 허가자료 인정 범위를 확대해 주었고, 박근혜 정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상 유전자치료는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질병일 때,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를 동시에 만족해야 가능했던 것을, 2015년 일부 조항을 신설해 두 조항 중 한 가지만 충족하더라도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완화해 주었다. 이로 인해 코오롱은 2015년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국책과제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이후 3년간 약 82억 1000만원의 정부 지원을 받기도 했다.

그 외에도 유전자 치료제 특성상 자체 교차검증이 필수적인데도 코오롱이 제출한 자료만을 의존해 허가를 내준 것이나, 심의과정에서 7명 중 6명이 반대함에도 위원을 교체하여 통과시킨 것 등 한 마디로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규제 완화를 통해 생명 투기세력을 지원했던 것이다. 이렇듯 인보사사태는 의료산업화가 탄생시킨 괴물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인보사사태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의하면 인보사사태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된 허가 과정을 더욱 간소화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두어 특별심사를 통해 조건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3상 임상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등 모든 국민을 실험용 쥐로 전락시킬 수 있으며 생명 투기 세력에게 국민의 생명을 통째로 맡기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의료는 산업육성과 경제성장의 도구가 아니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인 것이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규제를 통해 제대로 된 첨단의학이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 의료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안전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하는 것이다. 인의협의 정형준사무처장의 말대로 의료 신기술은 안정성뿐 아니라 효용성도 매우 중요하다. 안전하기만 하다고 마구잡이로 쓰여서는 안 된다.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추진

전의면, 관내 38가구에 명패 부착 · 감사의 선물 전달

세종시 전의면(면장 이은일)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면내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38가구를 방문해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부착하고, 나라와 후손을 위한 국가유공자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국가유공자의 집을 알려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의면은 명패 부착과 함께 국가유공자 모든 분에게 작은 화분을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신정리에 거주하고 있는 이규필 씨는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만들어 직접 부착해 준 세종시 전의면과 국가보훈처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은일 면장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전달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 설

학생을 볼모로 삼는 총파업 자제해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총파업이 3일부터 사흘간 진행될 예정이어서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학교비정규직에는 급식조리원, 돌봄전담사, 교무행정사 등이 포함돼 있어 급식대란이나 돌봄교실 운영 등에 차질이 우려된다. 하지만 사상 최대 규모의 파업을 앞두고도 교육 당국은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학교 현장과 학생 · 학부모들의 피해가 불가피해 보인다.

교육 당국은 최근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협상에서 기본급을 1.8% 올리고 이외 수당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추후 결정하자고 제안했으나 노조는 17개 시 · 도교육청 등이 제시한 인상 제의를 거부하고 전 직종 기본급 평균 6.24% 인상, 정규직 대비 근속급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적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은 예산 등의 문제로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쟁의조정 결렬 이후에도 협상은 계속됐지만 임금인상률 등에서 접점을 찾지 못해 총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 연대회의 조합원은 9만5천여 명으로 전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5만여 명이 총파업에 참여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지금보다 조합원이 적었던 2017년 6월 총파업 때도 전국 국공립 초 · 중 · 고 가운데 1천929곳의 급식이 중단됐었다. 당시 학교에선 빵과 우유, 외부 도시락 등으로 급식을 대체하거나 학생들에게 개인 도시락을 지참토록 했다. 따라서 지난 파업보다 규모가 클 이번 파업이 미칠 혼란은 더욱 클게 뻔하다.

물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임금이나 근무환경 개선은 당연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처우 개선을 위한 파업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어른들 싸움에 애꿎은 학생들이 희생양이 되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 전국 각 시 · 도교육청이 총파업이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는 하나 급식이나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학생 · 학부모 피해가 가중되고, 학사일정 파행 등 학교의 비정상적인 운영이 반복되게 파업을 방치해선 안 된다. 교육부와 시 · 도교육청은 파업사태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며, 비정규직연대회의는 학생을 볼모로 삼는 파업을 당장 멈춰주기 바란다.

국민은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원한다

한국사회에선 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세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전체 10명중 8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달 2일 내놓은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V)'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80%이상이 소득격차가 너무 크고 공정성도 약해 정상적으론 출세할 수 없는 사회라고 응답했다. 우리사회가 빈부격차로 인한 계층 간 불평등에 노력한 만큼 보상도 받기 힘은 불공정 사회란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깊게 뿌리 내려 있는 것이다.

지난해 전국 성인 3873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소득격차가 너무 크다는 응답은 85.4%에 달했다. 성공하는데 부유한 집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매우중요' 31.7%, '대체로 중요' 492%로 전체 809%가 부유한 집안 배경이 인생성공에 영향을 준다고 느끼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에 대한 동의 비율은 662%였지만 법집행이 평등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답은 125%에 불과했다.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해지지만 돈 없고 배경 없이는 출세할 수 없는 나라. 고위인사 비리에 대한 법집행 역시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나라가 '한국'인 셈이다. 빈부차이가 심해지면 국민적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 바닥을 벗어나려 해도 신분이 발목을 잡아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사회에선 꿈과 희망을 말할 수 없다. 여기에 만인에 공평하다는 법 적용에 까지 불신이 틈을 보이는 사회라면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국민이 감정적으로 느끼는 현실과 사회구조적인 실제 흐름에 차이가 있을 순 있다. 하지만 계층 간 이동이 힘들어지고 있단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사법기관들의 내 식구 감싸기 수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적지 않은 것도 부인해선 안 된다.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이대로 고착된다면 국민적 무기력이나 소외감으로 인한 불안정성은 가중 될 수밖에 없다. 사회 질서의 근간인 규범이나 가치가 흔들리는 혼란의 상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단 것이다. 소득에서부터 노동, 교육에 균형의 원칙이 적용되고 정상적인 사고가 곧 사회의 원칙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 국민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이유가 없기에 더욱 그렇다.

보령시, 3분기 공공근로 및 하반기 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보령시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청년의 실업난 해소를 위해 3분기 공공근로 및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은 공공근로 45개 사업에 105명, 지역공동체 5개 사업에 7명 등 모두 112명이 참여하게 된다.

공공근로 사업으로는 공공체육시설 및 평생학습관 환경정화, 푸드뱅크 지원, 휴양림 시설물 관리 및 등산로 정비, 해양쓰레기 수거 등 45개 사업에 105명이 오는 9월 20일까지 참여하게 된다.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통 · 번역 지원, 웅천천변 경관식물 식재 등 5개 사업에 7명이 참여하여 오는 10월 25일까지 근무하게 된다.

근로조건은 65세 이상은 주 15시간으로 동일하며, 공공근로사업 65세 미만은 주 25시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65세 미만은 주 30시간, 청년일자리사업은 주 40시간이며, 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출근일에 한해 부대경비 5000원을 별도 지급한다.

보령=김정미 기자

☎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E-mail : d-mail@hanmail.net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요망.
※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전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젊은생각 · 바른신문 2006년 5월 17일 창간

발행 · 편집인 김현정 회장 김성구 논설위원 조정호
전화안내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배달안내 042)538-1602 광고신청안내 042)538-1603 구 독 료 월1만3000원 1부 700원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63-2 ☎ 02)6406-5921 팩스 02)392-5143
인쇄 처 : 동양일보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닥터케어 GOLD

숙취해소

말이 왜 필요합니까?

소비자 상담실 1899-1677

음주 전·후 각1포

미투 me too 술에

더 이상 당하지 맙시다!!

숙취해소전문기업 닥터케어

대표 조성덕